

굿모닝 인천  
Good Morning INCHEON

가자! 인천으로  
2013 실내·무도아시안게임



제4회 인천 실내·무도 아시안경기대회  
4th Asian Indoor & Martial Arts Games Incheon 2013

2012 9







**발행처** 인천광역시  
**발행일** 2012년 9월 1일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편집인** 허종식(대변인)  
**편집장** 유동현(미디어팀장) twitter.com/ihappyou  
**취재** 편집위원 이용남 twitter.com/youna1488  
 편집위원 정경숙 twitter.com/bluelou7  
 편집위원 김윤경 twitter.com/ice3333  
**사진** 자유사진가 김보섭 · 김성환 · 홍승훈 · 안영우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디자인 & 인쇄** 성광디자인(주) T. 032.881.9441

굿모닝인천은 [goodmorning.incheon.go.kr](http://goodmorning.incheon.go.kr)과  
 '인천시미디어' 앱, 소셜웹([social.incheon.go.kr](http://social.incheon.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포합니다.  
**구독문의** T.032.440.8306  
 (해외에 있는 친지에게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굿모닝인천〉의 못 다한 이야기, 동영상으로 보세요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이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련 기사의 취재 영상부터 뒷이야기까지 눈앞에 생생하게!  
 종이매체에서 디지털매체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이용방법** 스마트폰으로 페이지 상단의 QR 코드 촬영  
 스마트폰인 경우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 〈인천시미디어〉 앱을,  
 태블릿 PC인 경우 〈굿모닝인천〉 앱을 다운로드 후 실행  
 (사진 더 보기 기능은 태블릿 PC에서만 가능)



## Contents

04 **Communication** '굿모닝인천을 통한, 두 번째 여름휴가' 외

06 **한중 수교20주년** 황해국제요트대회

12 **Special** 인천의 야생화

16 **Incheon Life** 만석, 화수, 북성부두

20 **Enjoy Incheon** MTB

24 **바로 여기** 중앙공원

30 **비전 인천** 사회적 은행 '함께하는 사람들'

32 **한국인이 사랑하는 오래된 한식당** 평양옥

36 **Culture News** 커피콘서트, 찾아가는 공연

40 **아름다운 사람** 양궁 제작업체 대표 김경환

42 **Civic News** 'GCF 인천유치 국가적 홍보활동에 총력' 외

46 **Council News** '김영분 인천광역시의회 후반기의회 제1부의장' 외

48 **정보뱅크** 공동육아나눔터

50 **Info box** '2012 대한민국 도예공모전 개최' 외

54 **이달의 서평**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 외

55 **리크루트** 인천 고용정보

56 **건강칼럼** 자외선과 눈

57 **인천사는 이야기** '갈매기의 반란' 외

58 **모닝커피 한잔** 이희수 부개도서관 관장

59 **인천풍경 플러스** 무서워

## 06 한중 수교20주년 / 황해국제요트대회 이테올로기는 가라, 이 바다에서 함께 놀자

서해 혹은 황해는 대한민국과 중국이 나눠 가진 바다다. 가운데 보이지 않는 국경선이 그어져 있다. 오랜 시간 이 바다는 어업, 무역, 페리 그리고 전쟁의 바다였다.

## 12 Special / 인천의 야생화 산에 들에 마음에, 들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가을햇살 업고 야생화가 피었습니다. 자세를 낮추고 조곤조곤 이야기를 나눠 봅니다. 바람에 몸을 맡기고 향기를 잔잔히 흘날리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 24 바로 여기 / 중앙공원 녹색 양탄자 덮는 순간숨통이 탁~

중앙공원은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도심 밀착형 공원이다. 바로 옆에 편의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중앙공원은 그냥 점심시간 혹은 퇴근길에 도시락 까먹거나 가볍게 산책할 수 있는 올레길이자, 둘레길이다.



### Cover Story

상쾌하고 시원한 9월이다. 청명한 하늘을 보니 맑고 깨끗한 마음이 저절로 스며든다. 송도센트럴파크의 호수공원도 가을색 짙로 옷을 갈아입고 있다. 바람결 따라 흔들리는 물을 보노라면 언제 더위가 맹위를 떨쳤는가 싶다.

송도센트럴파크 · 사진 김성환



## 인천과 통(通) 하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과  
손을 마주잡고 눈빛을 나누며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인천시 대표 미디어와 SNS에서 우리 만나요.

### 인천시 미디어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 (goodmorning.incheon.go.kr)  
인터넷방송 **민트TV** (tv.incheon.go.kr)  
인터넷신문 **I – View** (enews.incheon.go.kr)  
스마트폰 앱 **인천시 미디어** (smart.incheon.go.kr)

### 인천시 SNS

**소셜웹** (social.incheon.go.kr)  
**블로그** (blog.naver.com/flyic)  
**트위터** (twitter.com/smartincheon)  
**미투데이** (me2day.net/incheon4u)  
**페이스북** (facebook.com/visionincheon)

###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인천에 대한 생각과 인천의 발전을 위한 제언 등을 자유롭게 적어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을 드립니다.

### 보내실 곳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변인실(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032-440-8305)  
홈페이지(goodmorning.incheon.go.kr)로도 받습니다.  
마감은 매월 20일까지입니다.  
응모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접수됩니다.

## 〈굿모닝인천〉을 통한, 두 번째 여름휴가

〈굿모닝인천〉8월호 잘 읽어보았습니다. 인천의 무인도와 워터파크 관련 기사를 읽으니 8월의 더위가 싹~ 사라졌습니다.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실감나는 기사와 시원한 사진을 통해, 마치 그곳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굿모닝인천〉을 통해 올해 두 번째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_ 이춘임 경기도 포천시

## 시민과 통(通)하는 〈굿모닝 인천〉

〈굿모닝 인천〉은 인천과 통하는 다양한 내용을 전달하는 시정소식지라는 데 자부심을 가져도 충분합니다. 타 시도 시정소식지와는 달리 기획과 편집에 앞서왔기 때문입니다. 시정소식지 관련 시민 평가회를 연다면 당연히 최우수에 한 표입니다. 사진도 좋고 내용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8월호에서는 특히 송도와 청라의 워터프린트를 조명한 기사와 바다갈라짐이 있는 무인도를 탐방한 기사가 기억에 남습니다.

\_ 최영재 계양구 효성동

## 나날이 발전하는 인천에 감동

청라와 송도 워터프린트 기사를 관심 있게 읽어보았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인천의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시도로 끊임 없이 변화하는 인천을 담기 위해 힘써주세요. 〈굿모닝인천〉9월호에는 추석에 대해 다루면 어떨까요? 추석의 의미부터 차례음식 준비하기, 추석 증후군 대처하기 등 특집 기사를 싣으면 매우 유용할 것 같아요. 인천을 사랑하는 독자로서 의견을 내봅니다.

\_ 전재영 부평구 삼산동

## 공원 내 편의시설이 더 잘 갖춰지길

제가 살고 있는 서구에 공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 휴식을 취하면서 운동도 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생겨서 기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이 뒷받침되지 않아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욱 내실 있게 공원이 조성된다면, 시민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겠지요.

\_ 김성철 서구 석남1동

## 미래를 제시하는 송도국제도시

송도 굿마켓에 참여한 인연으로 송도국제도시를 처음 방문했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도시가 있다니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높은 빌딩과 깨끗하게 정돈된 거리, 마치 외국의 어느 대도시 혹은 미래도시에 와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송도국제도시 그리고 인천이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길 응원할게요.

\_ 정진화 서울시 성동구

## 수인선 타고 인천으로 GO~GO~

수인선이 생겨서 친구가 살고 있는 인천에 갈 일이 많아졌습니다. 곁에 있어도 대중교통이 불편해서 자주 찾지 못했는데 반가운 일이 지요. 쾌적하고 정돈된 도시가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사실 옛 항구도시 등의 이미지가 있어서 인천이 그렇게까지 좋을 줄은 몰랐거든요. 소래포구, 송도국제도시 센트럴파크 등 앞으로 수인선 타고 인천에 자주 놀러가려고 해요.

\_ 김민정 안산시 상록구

## ‘외판섬, 그 이끌림...’

바라고 바라던 기다림이었을까요. 바다가 낙조가 보고 싶을 땐 가까운 인천으로 향합니다. 바다에 내리는 낙조는 일상의 모든 역경을 등지는 ‘아낌 없이 주는 나무’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고요히 사라지는 태양을 바라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좋습니다. 바쁜 사회생활에 지친 나를 엄마처럼 품어주는 바다가 있다는, 깊은 여운을 남겨 주어서 고맙습니다.

\_ 박지원 남동구 만수동

## GCF 송도국제도시 유치 기원

언론 보도를 통해 송도국제도시가 GCF(세계녹색기후) 사무국 유치에 발 벗고 나섰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도시와 경쟁하며 UN 기구 유치에 나섰다니, 송도국제도시에 가 본 적은 없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인천 송도국제도시 파이팅!

\_ 신민섭 서울시 강남구

## @Bulloger

시민께서 송영길 시장 트위터(@bulloger)를 통해 문의한 것에 대한 해당 부서의 답변입니다.



**@Bulloger** 중구 라이프아파트, 악취와 소음, 분진 등으로 환경이 말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이프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사업은 제도 미비, 대체부지 마련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아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우선 아파트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구, 향만 관계기관, 환경저해 요인 유발업체 등과 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Bulloger** 월미은하레일을 계속 홍물로 방치 할 건가요? 부실공사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면 철거를 하든지 결단내야 하지 않을까요.

월미은하레일은 시운전 과정 중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연말까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동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검증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검증용역 결과에 따라 운행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Bulloger** 인천의 노숙자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특히 이른 아침 동인천역에 가면 길에 자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해결방안이 없을까요.

거리노숙인 집중 현장상담 등을 추진해 쉼터 및 시설입소를 지속적으로 권유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강제적으로 시설입소를 시킬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노숙인 밀집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거리노숙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사람을 찾아주세요



**이름** 정혜진(당시 만 5세, 여)  
**발생일자** 1989년 4월 22일(토)  
**발생장소** 동구 박문사거리  
**신체특징** 오른쪽에만 쌍꺼풀, 웃으면 보조개가 약간 들어감  
**제보처** 어린이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  
**02-777-0182**  
www.missingchild.or.kr





# 이데올로기는 가라, 이 바다에서 함께 놀자

서해 혹은 황해는 대한민국과 중국이 나눠 가진 바다다.  
가운데 보이지 않는 국경선이 그어져 있다.  
오랜 시간 이 바다는 어업, 무역, 페리 그리고 전쟁의 바다였다.  
한국과 중국이 서로 손을 잡은 지 20년 되는 해, 이 바다에 '요트'가 뒀다.  
서해(황해)가 레저의 바다가 된 것이다.

글. 유동현\_본지 편집장 사진. 홍승훈\_자유사진가





**어느 시절...** 바다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니었다. 어부들은 그저 바다에 나가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아 오면 되었다. 더 잡고 싶은 마음에 조금 먼 바다로 나갔다. 쪽배는 바람을 이겨내지 못했다. 큰 파도가 사방에서 덮쳤다. 일엽편주(一葉片舟). 몇 날 밤 사투를 벌였다. 겨우 낚선 땅에 다다랐다. 언어가 잘 통하지 않은 곳이었지만 그곳 사람들은 적대감을 갖기 보다는 오히려 맛있는 음식을 주며 극진히 환대했다.

**다른 시절...** 바다 쪽에서 요란한 뿡가리 소리가 났다. 잠시 후 저 멀리 바다 건너 사는 사람들이 생선 처음 보는 진귀한 물건을 배에 싣고 포구에 나타났다. 그들은 그걸 주는 대신에 짐승가죽이나 쌀을 원했다. 그런데 이번엔 16세 정도의 처녀 한 명도 필요하다고 한다. 돌아가는 길에 용왕님께 바칠거, 라고 한다.

**또 다른 시절...** 오랜만에 꽃게 떼가 바다에 나타났다. 풍어가를 부르며 수십 척의 배가 바다로 나갔다. 노총각 칠성이는 내년 봄엔 기어이 장가를 가겠다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 그물질을 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수평선 저 너머에 검은 배들이 보였다. 중국배였다. 서로 꽃게 떼를 쫓던 양쪽 배들이 충돌했다. 난투극이 벌어졌다. 낚과 곡괭이들이 눈앞에 왔다갔다했다. 순간 칠성이가 외마디 소리를 질렀다. 순간 바다는 붉은색으로 물들었다.

**그리고 2012년 8월 11일...** 송도국제도시 인천대 학교 뒤편 바다에 멋진 자태를 뽐내는 요트들이 하나둘 보였다. 해마루호, 씨니호, 밴드포호, 아이린호, 아이비호, 엘레나호 등. 본격적인 물살 헤치기에 앞서 내해경기(인쇼어 레이스)로 워밍업을 한다. 대회 운영선인 '코리아나'호가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다. 레이스를 펼칠 요트들이 주변에 모여들었다. 오후 3시 26분. 코리아나호에서 '뽀'하는 경적 소리가 울려 퍼지자 요트들은 쏜살같이 앞으로 튀어나갔다. 1천300km 황해 대장정 물살이 막 갈라졌다.







황해국제요트대회는 인천을 출발해 중국 웨이하이와 칭다오를 거쳐 다시 인천으로 돌아오는 6일간 1천300여km를 항해하는 ‘대장정’이었다. 동북아시아 한·중·일·러 4개국 소속 요트 선수들요트 30척과 선수 240여 명이 대회에 참가한다. 이 평화와 우정을 싣고 황해를 건넜다. 황해에서 최초로 펼쳐진 대륙간 횡단 국제요트경기였다. 경기 장소는 3구간으로 나뉘었다. 8월 11일부터는 1구간 인천~웨이하이의 390km에 달하는 바다 위에서 42시간 동안 경기가 펼쳐졌다. 2구간 경기는 15일부터 17일까지 웨이하이~칭다오 360km에서 펼쳐졌다. 마지막으로 22일 시작된 칭다오~인천 3구간 경기는 60시간 동안 548km의 바다를 가르고 막을 내렸다.

크루들은 조를 짜서 돌아가며 2시간씩 쪽잠을 자면서 바다를 헤쳐 나갔다. 바다에는 피할 곳이 없다. 풍랑을 만나고 때로는 폭풍우와 맞닥뜨리면 그걸 이겨내야 한다. 그들에게 요트는 유람이 아니다, 생존이다. 바람과 한판 싸움을 벌이는 극한의 경쟁이다. 요트는 오직 바람으로 간다. 바람은 순풍일 수도 있고 돌풍일 수도 있다. 마치 역사 속의 한국과 중국의 애증 관계와 같다. 1200여 년 전 신라의 장보고가 노를 저어 나아갔던 그 바다를 동북아의 젊은이들이 돛 하나에 의지하고 건넜다. ‘동북아의 지중해’ 서해가 진정한 ‘평화의 바다’가 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1

## 산에 들에 마을에, 들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가을햇살 업고 야생화가 피었습니다. 자세를 낮추고 조곤조곤 이야기를 나눠 봅니다.  
봐주는 이 많지 않아 외로울 터 인데 자기 몫을 다해 피고 지는 꽃들이 기특합니다.  
바람에 몸을 맡기고 향기를 잔잔히 흠날리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글. 정경숙\_본지 편집위원 사진. 홍찬표\_야생화 사진작가

가을이 왔습니다. 고개를 젖히니 파란하늘이 탐스러운 구름을 거느리고 유유히 흘러갑니다. 구름 따라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어집니다.

그 길 따라 만나는 반가운 얼굴. 해국, 구절초, 벌개미취 ... 산과 들, 바닷가 틈바구니에 가을 들꽃이 수줍게 피었습니다.  
가까이서 보고 싶어 허리를 굽히다 아예 쪼그려 앉아봅니다. 신선한 바람과 깨끗한 이슬로 빛은 걸까요. 참 곱고 예쁘기도 합니다.

야생화는 사람에 의해 꽃 피우고 가치가 정해지는 꽃들과는 분명 다릅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연에 몸을 맡긴 채 스스로 꽃 피우고 씨를 맺지요.

때로 벅하는 비와 바람이 거칠게 심술을 부려도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일군 값진 아름다움으로 무심코 지나던 누군가의 일상을 잔잔히 흔드는 것이, 야생화의 행복입니다.

잠시 가던 길 멈추고 자세를 낮춰 꽃들과 인사하세요. 그리고 조곤조곤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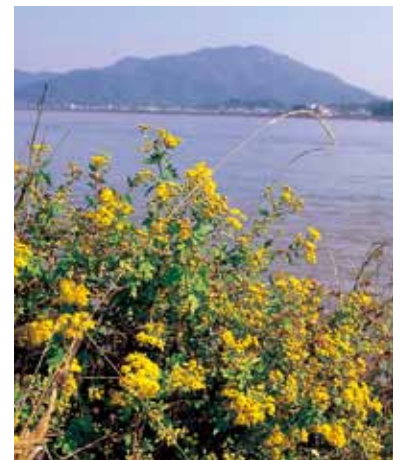
아름답지만 고개 숙이는 겸허함을 지닌 야생화 뺏뺏한 목을 잠시 아래로 향하면, 자연은 삶에 특별한 의미를 일깨워준답니다.



2



3



4

1. 벌개미취 | 화려함으로 현혹하지는 않지만 오래도록 마음을 붙잡는 순수함. 볼 수 있는 곳 : 계양산, 강화도, 별 잘 드는 산 꽃말 : 숨겨진 사랑, 청초, 그리움 2. 물달개비 | 이슬 머금은 초록 빛 잎사귀 곁에 신비로이 핀, 보랏빛 꽃. 볼 수 있는 곳 : 습지·논 꽃말 : 백만 달러 잡초의 소원 3. 구절초 | 아리따운 자태로 피어나 은은한 향기를 날리며 가을을 노래한다. 볼 수 있는 곳 : 강화도, 자월도, 영종도, 계양산 꽃말 : 순수, 우아한 자태 4. 감국 | 가을의 상징. 짙은 녹색 잎사귀와 노란 꽃잎의 대비가 싱그럽다. 볼 수 있는 곳 : 강화도, 주변 산과 들 꽃말 : 가을의 향기



“사랑으로 들꽃을 찍어요”

새로운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 듯, 꽃을 보고 카메라 렌즈를 활짝 열어젖히세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풍겨 나오는 그윽한 향기를 느껴보세요. 산과 들로 떠나기 전에, 전문 야생화작가로부터 꽃을 예쁘게 찍는 법을 배워 봅니다.

예전에는 접사 사진을 찍는 것이 정말 어려웠다. 그렇지만 오늘날 디지털 카메라가 보급되면서 일반 사진가들이 쉽게 접사렌즈나 광각렌즈를 이용해서 야생화를 찍을 수 있게 됐다. 작가들은 흔히 '사진은 발로 찍는다고 한다'. 같은 장소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따라 변하는 모습을 보면 놀랄 것이다. 아침 일찍 움직여야 한다. 예쁜 꽃에 맺힌 이슬방울까지 덤으로 찍을 수 있다. 또 꽃봉오리를 터트리고, 활짝 피고, 열매를 맺기까지 식물의 성장 과정을 담으려 공을 들여 보자. 그리고 순광보다 사광이나 역광을 이용할 것을 명심하자. 그래야 입체감이 난다. 마지막으로 야생화 촬영은 바람과의 싸움이다. 꽃과 속삭이며 끈기를 갖고 기다려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홍찬표** 우리 야생화의 아름다움에 반해 30년째 필름카메라에 꽃을 담아오고 있습니다.

한국야생화 연구회와 한국산악사진회 회원. 2008 한국식물협회 공모전 금장 외 입상을 다수했으며, <게으른 산행>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6

7

8

**5. 스크림** | 길가에서 자주 보는 반가운 얼굴. 소박하고 꾸밈없는 것이 가을을 닮았다. 볼 수 있는 곳 : 영종도, 서구 아라뱃길 주변, 들과 길가 꽃말 : 절초보은 **6. 물옥잠** | 영롱한 물빛을 닮은 연보랏빛 꽃이 물 위에 어리듯 피었다. 볼 수 있는 곳 : 계양천 습지 꽃말 : 변하기 쉬운 사랑의 슬픔 **7. 물질경이** | 손댈 수 없을 만큼 청초한 아름다움으로 주변까지 환히 빛낸다. 볼 수 있는 곳 : 강화도, 서구 논이나 도랑 꽃말 : 발자취 **8. 해국** | 섬 떠난 누군가를 기다리 듯, 바닷가 벼랑 끝 바위에 외로이 피어있다. 볼 수 있는 곳 : 영종도·자월도 꽃말 : 기다림 **9. 갯개미취** | 바닷바람 따라 흔들흔들, 누군가를 추억하듯 잔잔히 흔들린다. 볼 수 있는 곳 : 영종도·강화도 꽃말 : 추억



5

9





## 가을 부두에 ‘날 것’이 돌아왔다

부두는 생명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다. 고깃배들이 쉼 없이 드나들고 활자직한 분위기는 사람냄새, 사람사는 곳임을 진하게 풍긴다. 이곳은 어민들의 고단하고 거친 삶이 녹아있다. 그래서 풍부한 어족자원은 그들에게 행복이고 희망이다. 인천을 대표하는 만석, 화수, 북성부두는 60~80년대까지만 해도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던 어시장이었다. 연안부두가 생기고, 부두 주변에 공장이 들어서면서 어시장의 명성은 사라졌고 추억의 명소로만 남았다. 최근 한적하고 적적했던 이들 부두를 생활형 어시장으로 조성, 옛 영화를 되찾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어부들이 만선의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부두의 영화가 멀지 않아 보인다.

글. 이용남\_본지 편집위원 사진. 안영우\_자유사진가



## 만석부두

**활어, 냉동어류, 건어물 파는 수산물직매장**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 오가는 고깃배, 낚싯배, 화물선만이 적적한 바다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6,70년대 초까지 만해도 영종도를 왕복하는 정기선이 다녔고 수없이 많은 고깃배들이 드나들며 펄떡거리는 고기들을 내놓으면 금방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물건을 흥정하는 모습으로 부두엔 생기가 넘쳤다. 만석부두의 쇠락은 70년대 후반 어업은 축소되고 주변에 큰 공장이 들어서면서 부터다, 부두 주변엔 레미콘 공장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시설이 들어섰다. 고깃배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적어지면서 어부들은 더 이상 작은 포구를 찾지 않았고 연안부두나 소래포구로 어업의 터전을 옮겼다.

만석부두가 다시 활력을 얻고 있다. 지난 6월 수산물직판장이 생기면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만석부두 수산물 직매장은 170㎡ 규모로 인천수협에서 운영한다. 이곳에선 냉동류, 건어물, 조기류, 선물용품 등을 판매한다,

김, 미역, 조기, 오징어, 냉동꽃게 등 90여 가지 품목이다. 11, 12월 김장철에는 강화 새우젓, 덕적도 까나리액젓 등 지역의 특화상품도 판매할 예정이다. 미역, 멸치, 굴비 등은 이곳의 인기제품이다. 추석용 선물용품도 판매한다.

굴비의 경우 서해인근에서 잡아 전남 법성포에서 작업을 마쳐 선도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가격도 저렴하다. 9월부터는 꽃게, 낚지, 소라, 주꾸미 등 활어도 판매할 예정이다. 만석부두는 앞으로 어시장으로 꾸며 고깃배들이 잡은 고기판매 뿐만 아니라 회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만석부두 수산물직매장은 현재 편의차원에서 공영주차장을 한시적으로 무료 개방하고 있다.





## 화수부두

### 서해바다에서 갯 잡은 활어 경매

두산인프라코어, 일진전기 등 딱딱한 콘크리트 건물 벽을 끼고 한참을 들어가야 작고 아담한 화수부두를 만날 수 있다. 주변은 아직도 개발의 뒷전에 있던 탓인지 옛 포구의 정취가 곳곳에 남아 있다.

한때 인천 제2의 어항이었던 화수부두는 70년대 초 연안부두가 생기고 어시장이 들어서며 추억의 부두가 되었지만 70년대 만해도 연평, 백령도 근해에서 잡은 생선의 집하 부두였고 새우젓 전용 고깃배들이 입항할 정도로 새우젓 시장으로 유명했다. 한때는 어선들이 늘 뺑뺑하게 들어왔고 만선의 기쁨을 누렸다. 화수부두도 70년대 조성한 연안부두가 시민들의 인기를 얻고 인천제철이 화수부두앞 해면을 매립하면서 점차 어업기지로써의 기능을 잃어갔다.

화수부두를 살리는 작업이 시작됐다. 지난 6월 화수부두에 수산물유통센터가 건립돼 서해 앞바다에서 잡은 꽃게, 생새우, 주꾸미, 우럭, 장어 등에 대한 경매가 이뤄지고 있다. 수산물경매가 이뤄지면서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고, 부두가 활기를 띠고 있다. 8월 17일 처음 열린 위탁판매에서는 꽃게 경매가 이뤄져 분위기를 후끈 달궜다.

화수두부두 어시장으로 조성한다. 야시장처럼 생선도 판매하고 좌판에 앉아 회도 먹을 수 있는 관광형 어시장이다. 화수부두에 어시장이 생기면 동구, 서구, 중구시민들은 소래까지 가지 않아도 이곳에서 싱싱한 물고기와 회를 먹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구는 화수부두 활성화를 위해 부두로 들어오는 도로를 넓히고, 셔틀버스 운영, 공영주차장 조성을 준비하고 있다.



## 북성부두

### 파시처럼 배에서 싱싱한 물고기 직거래

북성부두를 찾기는 쉽지 않다. 가는 길엔 백곰 한 마리가 새겨져 있는 큰 공장이 육중하게 서 있어 공장 너머로 어디에 바다가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부두는 대한제분 뒷편에 숨어 있다. 지금은 옛날부터 이곳을 아는 사람들과 이국적인 풍경을 찍는 사진작가들에게만 알려진 공간이 됐다.

북성부두에서는 바다에서 갯 잡아온 싱싱하고 펄떡거리는 생선을 현장에서 살 수 있다. 평일엔 10여 척의 고깃배들이 부두에 배를 대고 손님을 기다린다. 싱싱한 고기를 살 수 있다는 매력이 시민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다. 바다의 향내를 가득 품은 생선은 맛이 달 뿐만 아니라 목에서 살살 넘어간다.

북성부두도 한때 꽤 규모가 큰 포구로 명성을 누렸다. 일제강점기 대규모 수산물공판장과 어시장이 들어선 뒤 1980년대까지 그 영화를 누렸다. 그러나 어시장이 이전하고 부둣가가 공장용지로 바뀌면서 사람이 찾지않는 부두로 바뀌었다.

북성부두는 아직 도심 속 어촌의 생생한 모습, 체험이 가능한 공간이다. 퇴약별 아래 그물을 손질하는 어부의 모습과 파시처럼 배에서 물고기를 파는 장면이 자연스레 눈에 들어온다.

북성부두도 11, 12월 김장철에는 젓갈시장이 열려 젓갈을 사려는 시민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어민들의 값진 노동이 부두를 풍요롭게 한다.





# MTB와 함께라면, 스치는 바람조차 자유

햇빛의 기세가 누그러지고 아침저녁으로 바람이 제법 소슬하다. 산으로 들로 나가기 좋은 계절.  
두 바퀴에 몸을 맡기고 가을 안으로 싱싱 달려보자. 산악자전거와 함께 라면 얼굴에 스치는 바람조차 자유다.

글. 정경숙\_본지 편집위원 사진. 김성환\_포토저널리스트





자전거, 아침 산을 깨우다

자전거 하나에만 의지해 가파른 산비탈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을 보노라면 감탄사가 절로 난다. 가파른 산길도 쪽 뺨은 고속도로와 다르지 않은 걸까. 울퉁불퉁 자갈밭도 물이 흐르는 골짜기도 못 가는 곳이 없다. 그들에게 산악자전거는 열정과 자유 다름 아니다.

산악자전거(MTB : Mountain Bike)는 등산과 사이클링의 매력을 버무려놓은 익스트림 스포츠. 1980년대 초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와 현재 수 많은 동호회가 활동할 만큼 사랑 받고 있다.

“출발 ~” 자전거를 탄 일행이 거침없이 산을 오른다. 인터넷카페 ‘나의 자전거’ 회원들은 매일 아침 8시면 인천의 아름다운 산을 찾아 라이딩을 떠난다. 산악자전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으며, 초보라도 베테랑 회원들의 지도로 어렵지 않게 라이딩을 즐길 수 있다. 이날은 산악자전거를 타기 위해 카페지기 ‘목장(추형기 43)’을 필두로 황후장사(조성수 52), 헬크(변일수 45), 타잔(정영복 44), 라스코(김민재 39), 마린(엄민용 39), 살몬(정윤상 38) 모두 7명의 회원이 모였다. 남보다 특별하게 하루를 여는 사람들, 활짝 웃는 얼굴이 아침햇살보다 빛난다.



자연과 하나 되어 ‘나’를 찾다

오늘의 라이딩 코스는 계양산. 솔밭에서 성황댕이 오솔길, 은지 초등학교 뒷산으로 이어지는 2시간 가량의 길로 산악자전거에 입문한 사람도 쉽게 달릴 수 있다.

자전거의 다이내믹한 진동이 고즈넉한 가을 산을 깨우기 시작한다. 드디어 평지를 지나 나타난 오르막길. 라이더들은 잠시의 머뭇거림도 없이 두 바퀴에만 의지해 가볍게 산을 날아오른다. 그렇게 한참을 땀 흘리고 전환점을 지나 맞이하는 내리막길, 보는 사람에겐 아찔하지만 자전거를 탄 사람에게는 짜릿한 순간이다. 심장을 두드리는 흥분, 혈관을 타고 흐르는 쾌감. ‘왜’는 없다.

“자전거와 혼연일체가 되어 비탈길을 오르내리면 다른 생각은 잊고 오직 나에게만 집중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산 아래 골인점을 통과하면 ‘해냈다’는 성취감을 맛볼 수 있지요.”

추형기 회장은 12년 전 자전거를 타고 캐나다를 횡단하면서 처음 산악자전거의 매력에 눈뜨다. 그리고 결국 오랫동안 근무한 무역회사를 관두고 서구 검단에 자전거숍 ‘정으로 달리는 자전거’를 열기에 이르렀다. 취미로 시작한 운동이 인생을 바꾼 것이다.

두 바퀴로 달리는, 그곳이 바로 길

삶을 바꿀 만큼 매력적인 산악자전거는 세월까지도 거스른다. 라이딩 경력 8년 차인 변일수 회원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다. “운동을 하면서 심폐 기능이 좋아지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건강나이라도 젊어졌어요. 하하하.”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는 산악자전거. 하지만 ‘나도 한번쯤’이라고 되뇌다가도, 역동적으로 산을 가로지르는 라이더를 보면 이내 주눅이 들고만다. 하지만 기억하라. 용기 있는 자만이 짜릿한 쾌감을 만끽할 수 있는 사실을. 그리고 평소 꾸준히 몸을 단련하고 안전수칙만 잘 지키면 산악자전거는 생각처럼 위험하지 않다. 회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산에서 자전거를 타는 게 오히려 도로보다 안전합니다. 돌발적인 위험요소가 없고 넘어져도 흙과 풀이거든요. 라이딩을 하기 전에 장비를 잘 점검하고 달릴 때 신경을 집중하면 되요.”

일상에서 탈출해 거침없이 산을 달리며 자유를 만끽하는 사람들, 울퉁불퉁 자갈밭도, 물이 흐르는 골짜기도 질주 본능을 잠재울 수는 없다. 그들에게 두 바퀴로 달리는, 그곳이 바로 길이다!

문의 산악자전거 모임 '나의 자전거' ☎010-6271-4671



도로는 재미 없다. 산이 좋다!

“인천에 어디 산악자전거 탈만한 곳이 있을까?” 초보자 및 중급자 위주로 즐길 수 있는 인천의 산을 소개한다. 대부분 싱글 길로 원하는 만큼의 거리와 난이도를 즐길 수 있다.

**가현산** 초보자부터 중급자, 상급자까지 즐길 수 있는 코스가 다양하다. 김포 쪽의 허산과도 이어져 중거리 산악 라이딩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코스는 가현산 ~ 허산 : 총 15km-도로 4km, 임도 2km, 싱글 9km / 초중급 코스, 2시간)

**성황댕이산** 서구 이마트 뒤쪽에 있다. 초보자가 타면서 실력 올리기에 더할 나위 없다. (왕복 5km 싱글 / 초보자 기준 1시간)

**계양산 솔밭길** 초보자부터 중급자, 상급자가 갈 수 있는 코스가 있다. 하지만 주말이나 휴일에는 등산객이 많아 라이딩의 리듬이 자주 깨진다.

**금정산** 초보자보다 중급자 이상되는 라이더가 실력을 뽐내기 좋은 산. (왕복 6km 싱글, 중급자 기준 1시간, 초중급자 기준 1시간 30분)

**황하산** 몇몇 라이더가 만든 점프대가 있어서 고급기술 연습하기 좋고, 거친 다운이 중간중간에 있어서 와일드한 스타일의 라이딩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좋다. (편도 4km 싱글, 중급자 기준 1시간~1시간 30분)

**골막산** 황룡사와 한진고등학교 사이의 산으로 중급자가 타기 좋다. 다소 거리가 짧을 수 있지만 할매산, 성황댕이와 연계가 가능해 코스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 (최대 5km 싱글 / 초보자 기준 1시간)

※ 꼭 기억하세요  
라이딩을 할 때는 등산로를 확보하고 등산객을 먼저 배려해야 합니다.









중앙공원은 이름 그대로 도심의 '중앙'을 남북으로 관통한다. 길이 3.8 km, 폭 100m, 전체 면적 약 36만㎡의 벨트형 공원이다. 인명여고 부근에서 시작해 종합문예회관~CGV~인천교육청~동암역 굴다리까지 관교동, 구월동, 간석동을 길게 지나간다. 공중에서 보면 흡사 거대한 녹색 양탄자를 깔아 놓은 듯하다.

중앙공원은 1987년에 첫삽을 떴다. 낡은 주택과 축사, 그리고 '붉은 마을'이라고 불렸던 판자촌이 있었던 자리에 올림픽기념 지구를 시작으로 숲을 조성해 2005년 희망의 숲 지구를 끝으로 사업을 마쳤다.

중앙공원은 9개지구로 나뉘어져 있는데 지구별로 조경, 시설 등에 차별화를 뒤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한다. 가장 남쪽에 있는 '광장지구' 부터 가장 북쪽에 있는 '희망의 숲 지구' 까지 찬찬히 산책해 보자. 횡단보도를 몇 번 건너야 하는 약간의 불편함은 있지만 '치안' 하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광장 지구**에 가면 함성이 들리는 듯하다. 이곳은 2002년 월드컵에 맞춰 조성된 곳이다. 월드컵 플라자에 대형 스크린이 설치돼서 1만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 모여 '오, 필승 코리아'를 외쳤던 곳이다. 그리스 신전과 같은 조형물과 하얀 기둥들이 세워져 있어 이국적인 풍광을 자아낸다. 인명여고 바로 앞에 있는 안개분수도 한번 눈여겨 볼만하다.

**터미널 지구**는 인천지하철과 종합터미널과 바로 연결돼 오가는 사람들이 많은 공원이다. 긴 여행 끝에 휴식을 취하려는 듯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띈다. 끝에 각종 교통표지판과 신호등 등이 있는 교통공원이 있다. 간혹 유치원생들이 단체로 교통 법규를 배우는 광경이 목격된다.

**예술회관 지구**는 녹지이기보다는 문화공간이다. 광장에서는 각종 문화 관련 행사가 자주 열리고 해가 지면 스케이트보드 타는 젊은이들을 흔히 볼 수 있다. 한켠에는 가곡 그리운 금강산 노래비와 장미터널이 있다.





**올림픽기념 지구**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념해 중앙공원에서 가장 먼저 조성된 곳이다. 이제는 우리 기억 속에서 점점 희미해져 가는 마스크트 호돌이상과 오륜마크 형상탑이 외롭게 서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뒤에 있다.

**하트분수 지구** 커다란 빨간 하트와 파란 하트가 멋지게 조화를 이룬 분수가 눈길을 끈다. 10 여m 이상을 내뿜는 분수와 주변의 실개천 때문에 여름철 인근에 사는 아이들의 최고 인기 장소다. CGV 건너편에 있다.

**조각원 지구**는 우리시와 자매 혹은 우호도시 결연을 맺은 키타큐슈시, 천진시, 연대시, 단둥시, 대련시, 청도시, 하이퉁시, 마닐라시 등 나라마다 특색 있는 조형물이 세워져 있다. 한쪽에 습지를 조성해 놓아 개구리, 잠자리 등이 서식하고 있다. 바닥 분수 옆에 시계가 눈길을 끈다. 시침, 분침, 초침 시계가 각각의 시간을 가리킨다.

**시청역 지구**는 원으로 혹은 직선으로 거미줄처럼 얹혀져 있는 산책길이 특색이다. 곳곳에 지압보드까지 깔려 있어 도시인의 고단함을 풀 수 있다.

**주원 지구**에는 인조잔디가 깔린 축구장과 농구장, 배드민턴장이 있다. 조명 시설이 설치돼 있어 밤늦게 운동을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이 보인다. 시계탑 광장 까지 길게 이어진 운치 있는 실개천이 공원 분위기를 한층 멋지게 연출한다.

**희망의 숲 지구**는 중앙공원 조성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상징성을 지닌 곳이다. '그린인천 300만그루 나무심기'를 기념하기 위해 '희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시민들이 기념할 만 한 일이 있으면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다. 가운데로 가면 너른 동산이 보인다. 기독교 단체의 성금으로 조성한 웨슬리 동산이다. 경인전철 철도길 가까이로 가면 소나무가 촘촘히 박힌 오솔길이 나온다. 후미진 곳에 있어 아는 사람만이 그곳을 여유롭게 걷는다.







# ‘한 가게도 망하지 않게’ 돕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가게라도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활의지가 있고 창업 능력이 있지만  
공적부조의 대상도 아니고 은행문턱을 넘기 어려운 차상위 계층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 사회적 은행인 ‘함께하는 사람들’은  
대안금융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희망사다리 역할을 하고자 만들어졌다. 시민사회, 지역기업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자발적 기부로 사업자금을 모아 어려운 이웃 돕기를 목표로 한다.

글. 이용남\_본지편집위원 사진. 홍승훈\_자유사진가



사회적 은행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의 창업을 우선  
지원한다. 취업경쟁력은 높지 않지만 창업을 통해 성공을 꿈꾸  
는 이들이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자금지원만 아니라 상권, 입지  
분석, 경영노하우 등 창업성공을 위한 체계적인 노하우를 제공하  
고, 돕는다. 즉 자금지원에서 사후관리까지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인천 인구의 6%인 18~20만명이 대상이다.  
창업은 인건비 비중은 높으나 시설비용이 적은 업종을 우선 지원  
한다. 실패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창업지원자들은 재정상태, 면담, 자활의지를 먼저 확인한다. 1주  
일 정도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사업계획 타당성을 심사한다. 훈

련기관에서 1주~한달간의 훈련을 받은 후 최종 지원자를 확정하  
다. 창업대상자로 선정되면 2천~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5년내 원리금과 이자를 합쳐 분할상환한다. 2천만원을  
지원받을 경우 약 38만원을 납입하면 된다. 정부의 미소금융 이  
자율(4.5%)보다 낮은 3%대로 저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셈이다. 당분간은 인천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서면 금융권  
을 통해 대출이 이뤄지지만 규모가 점차 확대되면 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함께하는 사람들’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 창업하면 창업 다음날부터 성공으로 가  
는 꼼꼼한 관리가 이뤄진다. 업소의 청소, 인사등 기본적인 사항

을 체크한다. 가게운영이 잘 안되어 이자와 연금이 연체가 될 경  
우 다시 경영진단이 이뤄진다. 경영진단을 통해 사업이 안되는 이  
유, 사업자 개인의 심리적, 정신적 문제 등도 두루 살펴본 후 개선  
사항을 제시하면서 하나의 점포도 망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신  
경을 쓰게 된다.  
함께하는 사람들은 1호점 오픈을 10월을 목표로 하며 올해 60개  
의 점포 개점을 연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함께하는 사람들은 또 더 많은 이웃들을 돕고자 기부회원을 모  
집하고 있다. 일정액을 기부하는 코어하트(Core Heart)회원과 마  
중물 회원, 재능기부 회원 등이다. 내년까지 60억원의 기금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문의 873-3800

## 창업을 꿈꾸는자 모여라

인천사회적은행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이 창업지원자를 모집한다. 창업  
에 관심이 있고,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은 모두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사업장 또는 창업희망자가 인천시내 만 20세 이상 인천거주자  
여야하고, 최저 생계비 200%이내인 저소득층 해당자, 실직자, 장애인, 한  
부모가정, 다둥이가정, 다문화가정이다. 선정기준은 사전심사, 자활의지,  
교육·훈련, 동의, 경영능력 등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자체자금 조달능력,  
상환의지를 보고 판단한다.  
접수기간은 9월 14일까지고, 서류 및 현장실사결과 선정자는 9월 24일부  
터 28일까지 15일간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 서민과 함께한 70여 년 깊은 맛

개항과 일제 강점기, 그리고 광복, 6·25전쟁을 거쳐 오늘에 이르는 동안 인천은 팔도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 와 사는 곳이 되어 버린 까닭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기 고향 지명을 옥호로 붙인 경우가 아주 많다. 땅에 얽히지 않고는 삶을 말할 수 없는 한국인의 본성, 지연(地緣)의 작용 때문일 것이다. 거기에는 또 여기 저기 흩어진 동향 사람들이 쉽게 찾아오도록 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을 것이다. 6·25전쟁 이후 그 같은 경향이 훨씬 두드러져 보이는 데 북쪽에 고향을 둔 이들의 점포가 특히 그랬다.

글. 김윤식\_시인 사진. 김보섭\_자유사진가

### 뚝배기에 찬밥 말아먹으면 끼니로도 든든

모르긴 해도 ‘평양옥(平壤屋)’ 상호도 그렇게 붙었을 것이다. 개업주 김석하씨는 1980년에 작고했고, 2대 업주인 그의 둘째 자제 동성씨마저 지난 2004년에 타계했으니 상호 작명의 더 자세한 내력은 3대, 손자 명천씨도 알 수 없는 채, 이렇게 “…… 붙었을 것이다.” 하는 식으로 추측할 수 밖에 없다.

평양옥은 1945년 평양 순안 출신인 김석하씨 부부가 중구 신흥동 3가 18번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개업한 장국밥집이 그 기원이다. 그는 일제 때 만주에서 신발 공장을 경영했었는데, 일본이 패망하자 중국인들이 등쌀을 대 빈털털이로 귀국, 어찌어찌 인천으로 오게 되었고, 당시 인천우체국 직원으로 있던 처가 쪽 식구가 이 자리에 방 하나짜리 집을 내주어 그것이 오늘의 이런 큰 건물의 터전이 된 것이다.

외지에서 갓 온 사람들은 평양옥을 냉면집으로 오인한다. 평양이라는 지명 때문이다. 그러나 대

1 평양옥 해장국 3 주인 할머니의 칠순잔치. 옛 평양옥의 내부모습을 볼 수 있다. 4 해장국을 사가는 청년 2·5 평양옥에는 가족단위 손님이 유독 많다.





6 평양옥 창업주 할머니의 옛모습 7 작고한 2대 업주 김동성씨 8 현재 평양옥을 운영하고 있는 김명천 사장



표적인 메뉴는 해장국이다. 고 신태범 박사의 '먹는 재미 사는 재미'에 실린 인천의 향토 음식, 해장국 이야기를 살펴보자. 끝에 평양옥 상호도 보인다.

“쇠뺨와 배추 우거지를 밤새 끓여 내는 토장국이 인천식 해장국이었는데 쇠뺨의 기름기와 재래식 된장이 어울려 풍기는 구수하고 부드러운 맛이 향수어린 토속적 미각을 느끼게 했다. 5전(錢)만 내면 막걸리 한 사발에 국이 한 톱배기라 아침 요기가 되고, 곱빼기를 시키거나 집에서 가지고 나온 찬밥 덩어리를 국에 말아 먹으면 충분한 아침 끼니가 되었다. 해장국이란 이름은 술에 끓은 속을 푼다. 또는 빈속을 달랜다는 뜻에서 연유된 것이라는 근사한 설도 있으나 어느 쪽이건 간에 근로자층의 변함없는 환영을 받고 있었다. 해장국집은 터진개 골목(신포동)과 답동 상밥집 거리, 그리고 용동 술집 골목에 여러 집이 모여 있었는데 그대로 지금까지 남아 있는 집은 하나도 없다. 현재 신흥동의 평양옥과 신포동의 답동관이 그 당시의 해장국 모습과 맛을 충실하게 계승하고 있는 것이 몹시 대견스럽다.”

인용이 길어졌으나 신태범 박사의 구수한 문장을 통해 유일하게 우리 인천 향토 음식의 맥을 잇고 있는 평양옥 해장국의 실체를 부연 설명 없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향토성과 오랜 세월 변함없는 맛이 지난 7월 농림수산식품부와 한식재단이 펴낸 『한국인이 사랑하는 오래된 한식당』 100군데에 선정된 요인이다. 다만 신포동의 답동관은 1980년대 중반 무렵 개축했는데 그 후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다.

### 1970년대 작업복 입은 박 대통령도 단골손님

실제 평양옥에는 해장국 외에 냉면도 중심 메뉴에 들어 있다. 여기 냉면은 길거리에 흔한, 냉면 이랄 수도 없는 소속 불명의 잡면들과는 달리 육수가 독특한 향미를 띠는 데다가 면발도 나무랄 데 없이 입에 상쾌하다. 이 역시 전통의 인천 냉면 맛인데 요즘 사람들은 이 맛을 전혀 모르는 것 같다.

우리 또래가 음식점 출입을 제대로 할 수 있었던 1960년대에는 갈비탕이 더 높은 평판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큰 대접에 담긴 진하고 기름진, 그러나 느끼하지 않고 구수한 국물과 잘 고아진 푸짐한 갈비는 생각만 해도 침이 고인다. 설렁탕도 한때는 인기가 있었으나 지금은 메뉴에서 빠졌다. 뭐니 뭐니 해도 당시 최고급 메뉴는 양념 쇠갈비였는데, 늘 남의 자리에서 풍겨 오는 굽는 냄새만 맡을 수 있었지 풍족하게 먹어보지는 못했다.

평양옥에는 그 성가(聲價)대로 유명 인사들이 많이 출입했다. 개업 초기에는 광복 직후 부활된 경평전(京平戰) 축구시합에 출전하는 고향 선수들에게 냉면 배달을 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평양옥을 유명하게 만든 것은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출입.

박 대통령은 새벽 4시 통금이 해제되면 이따금 작업복에 모자를 눌러 쓴 채 들어와 자리에 앉곤 했다는 것이다. 대동한 경호원 한 명과 마주앉아 해장국을 먹는 박 대통령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는데 어느 날 한 시민이 “저 사람 대통령이다” 하자 박 대통령이 “아, 이제 여기도 못 오겠네” 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는 것이다.

1980년대에는 전두환 대통령도 월미도 해역사령부를 순시하고 불시에 들어와 갈비와 냉면을 먹고 가기도 했다. 근처에 인천실내체육관이 있어 정치의 계절에는 유명 정치인들이 행사 뒤에 평양옥을 찾았다.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이회창 전 대표, 정주영 회장, 박근혜 전 대표 등이다. 가깝게 인천야구장과 육상장도 있었기 때문에 운동선수들도 많이 드나들었다. 오비베어스 박철순 투수, 윤동균 선수, 삼미슈퍼스타즈의 장명부 투수, '우생순'의 임병철 감독, 축구의 신태용 감독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향수를 부른 가수 이동원과 신승훈도 인천에 오면 꼭 들르는 고객이다.

기억 속에는 인천 어른으로 최정환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신태범 박사, 유충렬 광성고 교장, 노창현 부시장 등을 이 집 객실에서 직접 뵈곤 적이 있다. 지금은 모두 세상을 떠나시고 안 계신다.

평양옥 해장국의 맛에 대한 정평은 이미 과거에 홍성유 작가가 내렸고, 인천에서는 신태범 박사가 글을 남겼다. 집안 곳곳에 유난히 우환이 많았었지만 서북인(西北人) 기질 그대로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인천 최고(最古)의 해장국집으로 우뚝 서 오늘에 이른다. 정녕 '대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70년 가까이 변하지 않는 음식 맛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제 백 년을 넘어 백오십 년, 이백 년, 대를 물려 전통을 이어가기를 바란다. 그 구수한 맛과 분위기 길이 불변해서 온 세상에 인천 해장국의 대명사가 되기를 기원한다.

※ 다음호 한국인이 사랑하는 오래된 식당은 강화도 백반집 '우리옥'이 소개됩니다.



## 9월 공연·전시 Calendar

SUN	MON	TUE	WEN	THU	FRI	SAT
						<b>1</b>
				백영규의 〈지금 몇 시죠?〉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5시 / 전석 4만원 ☎(주)공간422-3800	인천광역시와 전남 장흥군의 기획 교류 공연 〈연극 '아버지'〉 인천수문문화회관 소극장 오후 4시 7시 ☎극단 까치줄 873-5174	황금 토끼 〈인천시립합창단의 오페라 갈라 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420-2733
<b>2</b>  청소년을 위한 가을특선 Guitar Festival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6시 / 전석 1만원 ☎인천기타양상블 330-4561  일요국악상설공연 "얼쑤" 〈대구영남소리보존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인천광역시 875-4644	<b>3</b>	<b>4</b>	<b>5</b>  제5회 예전전통국악예술단 정기공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 전석 1만원 ☎예전전통국악예술단 567-4075	<b>6</b>  인천시립교향악단 제21회 정기연주회 〈금난새와 함께하는 비유투오조 시리즈Ⅲ〉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30분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시립교향악단 1588-2341  음악회 제3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행복한 동행을 꿈꾸며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1층 아드홀 오후 7시 / 무료 ☎(사)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인천지부 070-4098-5528	<b>7</b>  제13회사회복지의날 기념식 및 문화행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2시 / 무료 ☎사회복지봉사단 883-1773  황금 토끼 〈아카펠라그룹 메이트 리와 함께하는 세계음악여행〉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420-2733  음악회 제3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행복한 동행을 꿈꾸며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1층 아드홀 오후 7시 / 무료 ☎(사)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인천지부 070-4098-5528	<b>8</b>  2012 인천음악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30분 / 전석 1만원 ☎인천음악협회 873-7772  이재선의 예술이야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4시 7시 / 전석 2만원 ☎S Dance Company 361-2020  황금 토끼 〈인천시립무용단의 옛 그리고 흥〉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420-2733  모차르트 어린이뮤제라 '바비비비의 사랑이야기',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2층 씨리재홀 오후 2시 5시 / 6천원 학생 무료 ☎760-3457
<b>9</b>  2012 인천음악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30분 / 전석 1만원 ☎인천음악협회 873-7772  브릴란테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5시 / 초대 ☎브릴란테 561-2021  일요국악상설공연 "얼쑤" 〈인간문화재 김해원 명창〉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인천광역시 875-4644	<b>10</b>	<b>11</b>  2012 미추홀 국악단 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8시 / 초대 ☎미추홀아트센터 518-1511  11시극장 '사치람 음악처럼 책을 연가하다' 부평문화사랑방갈산2동주민센터 3층 오전 11시 / 3천원 ☎505-5995	<b>12</b>  뮤지컬〈도깨비를 빨아버린 우리 엄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전 10시30분 / 전석 1만5천원 ☎극단 유리가면 1544-3901  청소년을 위한 인천시립교향악단 최아기는 연주회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2층 씨리재홀 오후 7시 / 무료 ☎760-3457	<b>13</b>  뮤지컬〈도깨비를 빨아버린 우리 엄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전 10시30분 / 전석 1만5천원 ☎극단 유리가면 1544-3901  청소년을 위한 인천시립교향악단 최아기는 연주회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2층 씨리재홀 오후 7시 / 무료 ☎760-3457	<b>14</b>  댄스컬 〈사랑하면 춤을 춰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 전석 3만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588-2341  황금 토끼 〈남자가 남자를 노래하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420-2733  〈마실거리 야외공연〉 클래식 콘서트 '칸타빌레' 사구정 후문 마실거리 오후 6시 30분 / 무료 ☎560-4345	<b>15</b>  댄스컬 〈사랑하면 춤을 춰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5시 / 전석 3만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588-2341  황금 토끼 〈인천시립교향악단의 브라스 판타지아Ⅱ〉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420-2733  (2012피크닉콘서트 시리즈4) 무료야외콘서트 부평아트센터 야외 잔디마대 자네 8시 / 무료 ☎500-2000  클래식 콘서트 'MK양상블 리사이틀'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5시 R석 3만원 A석 2만 5천원 학생 1만원 ☎500-2000
				사랑방 상주단체 정기공연 (연극 '택시 택시') 부평문화사랑방갈산2동주민센터 3층 오후 8시 / 1만 5천원 학생 8천원 ☎극단(MIR)레퍼토리 505-5995	사랑방 상주단체 정기공연 (연극 '택시 택시') 부평문화사랑방갈산2동주민센터 3층 오후 8시 / 1만 5천원 학생 8천원 ☎극단(MIR)레퍼토리 505-5995	댄스컬 〈사랑하면 춤을 춰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 전석 3만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588-2341  황금 토끼 〈남자가 남자를 노래하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420-2733  〈마실거리 야외공연〉 클래식 콘서트 '칸타빌레' 사구정 후문 마실거리 오후 6시 30분 / 무료 ☎560-4345
				사랑방 상주단체 정기공연 (연극 '택시 택시') 부평문화사랑방갈산2동주민센터 3층 오후 8시 / 1만 5천원 학생 8천원 ☎극단(MIR)레퍼토리 505-5995	사랑방 상주단체 정기공연 (연극 '택시 택시') 부평문화사랑방갈산2동주민센터 3층 오후 8시 / 1만 5천원 학생 8천원 ☎극단(MIR)레퍼토리 505-5995	댄스컬 〈사랑하면 춤을 춰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 전석 3만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588-2341  황금 토끼 〈남자가 남자를 노래하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420-2733  〈마실거리 야외공연〉 클래식 콘서트 '칸타빌레' 사구정 후문 마실거리 오후 6시 30분 / 무료 ☎560-4345
<b>16</b>  웅산의 재즈콘서트 (Enjoy the JAZZ)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4시 VIP석 4만원 R석 3만원 S석 2만원 ☎인천광역시 1588-2341  일요국악상설공연 "얼쑤" 〈전통예술공연단 타루〉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인천광역시 875-4644  사랑방 상주단체 정기공연 (연극 '택시 택시') 부평문화사랑방갈산2동주민센터 3층 오후 8시 / 1만 5천원 학생 8천원 ☎극단(MIR)레퍼토리 505-5995	<b>17</b>	<b>18</b>  사랑방 상주단체 정기공연 (연극 '택시 택시') 부평문화사랑방갈산2동주민센터 3층 오후 8시 / 1만 5천원 학생 8천원 ☎극단(MIR)레퍼토리 505-5995  제7회 남구청소년합창단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 초대 ☎인천남구청 880-4981	<b>19</b>  커피콘서트7 〈이다도시와 함께하는 상송과 칸초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 전석 1만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588-2341  사랑방 상주단체 정기공연 (연극 '택시 택시') 부평문화사랑방갈산2동주민센터 3층 오후 8시 / 1만 5천원 학생 8천원 ☎극단(MIR)레퍼토리 505-5995	<b>20</b>  인천광역시 근로자종합예술제 "근로자 가오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5시30분 / 초대 ☎한국노총인천본부 437-8501~3  가족뮤지컬 "후크선장"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2층 씨리재홀 오전 10시 20분, 11시 20분 전석 1만 5천원 ☎사단법인 한국예술경영협회 7825-2047  사랑방 상주단체 정기공연 (연극 '택시 택시') 부평문화사랑방갈산2동주민센터 3층 오후 8시 / 1만 5천원 학생 8천원 ☎극단(MIR)레퍼토리 505-5995	<b>21</b>  인천시립무용단 제76회 정기공연 (인당수-춤, 심청)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8시 / R석 1만원 S석 5천원 ☎시립무용단 1588-2341  최희정 피아노독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30분 / 전석 2만원 ☎최희정 468-2630  황금 토끼 〈조이브라스밴드의 Music Story〉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420-2733  사랑방 상주단체 정기공연 (연극 '택시 택시') 부평문화사랑방갈산2동주민센터 3층 오후 8시 / 1만 5천원 학생 8천원 ☎극단(MIR)레퍼토리 505-5995	<b>22</b>  인천시립무용단 제76회 정기공연 (인당수-춤, 심청)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8시 / R석 1만원 S석 5천원 ☎시립무용단 1588-2341  색소폰오케스트라와 댄스스포츠의 만남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30분 / 초대 ☎위드어스 색소폰오케스트라 010-9733-1307  사랑방 상주단체 정기공연 (연극 '택시 택시') 부평문화사랑방갈산2동주민센터 3층 오후 8시 / 1만 5천원 학생 8천원 ☎극단(MIR)레퍼토리 505-5995
<b>23</b>  김두홍 귀국독학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30분 / 전석 1만원 ☎김두홍 010-8181-0749  일요국악상설공연 "얼쑤" 〈풍경이 있는 소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인천광역시 875-4644	<b>24</b>  사랑방 상주단체 정기공연 (연극 '택시 택시') 부평문화사랑방갈산2동주민센터 3층 오후 8시 / 1만 5천원 학생 8천원 ☎극단(MIR)레퍼토리 505-5995  제30회 제물포예술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4시 / 초대 ☎인천예총 872-7873	<b>25</b>  인천해광학교 심포니오케스트라 제2회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 1만 5천원 학생 8천원 ☎인천해광학교 522-8345  예술무대 청백연희단 '다이나미 페 스티벌 원 청백' 부평문화사랑방갈산2동주민센터 3층 오후 7시 30분 / 3천원 ☎505-5995	<b>26</b>  인천시민합창단 특별공연 (우리 동네 합창 페스티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 무료 ☎인천시민합창단 1588-2341  음악과 함께 흐르는 이야기 〈호랑님 생일날〉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 전석 1만5천원 ☎교육극단보물상자 819-1002	<b>27</b>  인천시립교향악단 기획연주회 (위대한 작곡가 집중탐구 시리즈- 드보르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30분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시립교향악단 1588-2341  음악과 함께 흐르는 이야기 〈호랑님 생일날〉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전 11시 / 전석 1만5천원 ☎교육극단보물상자 819-1002	<b>28</b>  추석맞이 효콘서트 〈김용임의 '情'〉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VIP석 8만8천원 R석 7만7천원 S석 6만5천원 ☎동인문화재단 446-9711  황금 토끼 〈모두 함께 즐기는 락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420-2733	<b>29</b>



###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21회 정기연주회 Maestro Gum&Virtuoso series III

금난새의 지휘 아래 '클라리넷의 마술사' 마이클 콜린스가 무대에 오른다.  
마이클 콜린스는 눈부신 기교와 섬세하고 뛰어난 음악적 고감능력으로 오늘날 최고로 인기 있는 솔리스트 중 한사람이다. 최근에는 로알 필하모닉 소사이어터즈 올해의 기악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이번 연주회는 베버의 클라리넷 콘체르티노 Eb 장조와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를 들려준다.

일시 9월 6일(수) 오후 7시 30분  
티켓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문의 엔티켓 1588-2341



### 기획 공연 댄스컬 '사랑하면 춤을 춰라'

〈사랑하면 춤을 춰라〉는 세계적 언어인 '춤'으로 소재로 택하고 있는 난버벌 형식의 댄스컬이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단순한 이야기 속에 여러 춤을 유쾌하게 배합시켜 공연의 처음부터 끝까지 무대와 객석이 하나 되는 축제와 같은 공연이다.  
2004년 초연 이후 현재까지 전국 55개 도시에서 약 2700회 공연을 한 〈사랑하면 춤을 춰라〉는 전 세계에서 열풍을 일으키며 65만 관객을 돌파했다.

일시 9월 14일(금)~15일(토), 14일 오후 7시 / 15일 오후 2시, 5시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전석 3만원 문의 엔티켓 1588-2341



### 인천시립교향악단 기획연주회 위대한 작곡가 집중탐구 시리즈

이경구 예술감독의 지휘 아래 체코의 대표음악가, 드보르자크의 음악 세계에 깊이 있게 다가가는 시간이다. 드보르자크의 「첼로협주곡 b단조」는 올해 18살의 차세대 첼리스트 문태국이 함께한

다. 문태국은 성정문화재단의 영재로 발탁되어 차이코프스키 청소년 국제콩쿠르 3위, 앙드레 나비라 국제 첼로 콩쿠르 최연소 1등 등 수많은 콩쿠르를 휩쓸었다.

일시 9월 27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문의 엔티켓 1588-2341



- 01일~06일 아름다운 자연환경 보존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 01일~06일 사랑, 생명, 희망이 있는 생활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 01일~06일 View Incheon 인천을보다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 01일~06일 제3회 아라리 작품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 01일~20일 제7회 1318 Art contest 초등미술 실기대회수상작품전 /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 01일~27일 이상한 동물원(The Weird Zoo)展 / 부평아트센터 갤러리 꽃누리
- 04일~12일 한국-호주 예술가 그룹교류전 / 인천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2층 가온갤러리
- 07일~13일 황해미술제 - 신나는 지존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 07일~13일 제1회 김용임 개인전 - 비움 -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 인천시립무용단 제76회 정기공연 인당수-춤, 심청

인천시립무용단의 〈인당수-춤, 심청〉는 전래동화 속 심청을 중심으로 전통을 과감히 해체하고 재조합하는 퓨전 형식의 실험적 작품이다.  
다양한 장르의 현대음악을 작품에 도입, 전통무용과 새로운 접목을 시도한 인천시립무용단의 〈인당수-춤, 심청〉을 통해 우리 춤이 가진 새로운 매력에 빠져보자.

일시 9월 21일(금)~22일(토), 21일(금) 오후 8시, 22일(토) 오후 5시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R석 1만원, S석 7천원 문의 엔티켓 1588-2341



### 인천&아츠 공연 가을! Falling in Classic

세계적인 명문음악원인 영국왕립음악원을 전액 학금으로 입학한 유영경, 유영웅 남매가 감미로운 클래식 무대를 선사한다.  
유영경은 1998년 마틴 음악 장학금 어워드 등을 수여받았으며 한국음악협회 장학 콩쿠르에서 1위로 입상하기도 했다. 유영웅 또한 조선일보 콩쿠르 2위 입상, 금호문화재단 장학생 선발, 파셀 쿨 콘체르토 콩쿠르 1위 입상 등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이번 공연에서는 파가니니의 「로시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 차이코프스키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 등을 연주한다.

일시 9월 16일(일) 오후 5시

티켓 전석 1만원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문의 엔티켓 1588-2341



### 커피콘서트Ⅶ 이다도시와 함께하는 상송과 칸초네

9월 커피콘서트는 방송인 이다도시의 깔끔하고 재미있는 입담과 베이스 나윤규, 바리톤 고한승 등 정상의 성악가들이 펼치는 최고의 하모니가 관객들을 만나는 도시 파리와 로마로 초대한다.

일시 9월 19일(수) 오후 2시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전석 1만원

문의 엔티켓 1588-2341



# 예술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무대’

아침, 저녁 선선한 기운이 여유로움을 느끼게 한다.  
이럴 때 마음에 맞는 음악에 몸을 맡기고 한적하게 이른 가을을 누리면서  
무더웠던 지난 여름의 피로를 떨쳐내면 어떨까?  
조금만 눈길을 돌리면 넉넉하고 기분 좋게 즐길만한 공연이 우리 주위에 가득하다.

글. 김윤경\_본지 편집위원



예술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지만, 1년 내내 공연 한번 못 보는 이웃도 많다. 이들에게 모처럼 만나는 무대는 등줄기를 훑고 가는 시원한 바람이다. 인천시립예술단이 펼치는 ‘찾아가는 공연’은 그래서 더 풍성하게 인천 전 지역을 아름다운 선율과 몸짓으로 물들이고 있다.

## 아파트까지 찾아가는 공연

인천시립예술단은 평소 공연관람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직접 교화 시설, 섬, 군부대 등지에서 펼치는 ‘찾아가는 공연’을 연중 진행해 왔다. 특히, 우리 삶의 터전이 곧 문화공간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의 변화를 위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아파트 단지, 지하철 등에서의 공연도 마다하지 않았다. 시립예술단의 ‘아파트 단지로 찾아가는 공연’은 단지 내의 놀이터, 농구장 등 주민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간이 무대를 설치하고 해설과 함께 음악을 연주한다.

공연도 클래식, 세계 각국의 민요와 영화음악으로 장르가 다양하다. 더군다나 금난새, 윤하원 등 유명한 지휘자가 직접 해설자로 나서니, 감동받지 않을 수 없다. 지난 6월에는 몇 년간 연평도 피폭사건이나 천안함 침몰사건 등 많은 아픔을 겪었던 연평도와 백령도까지 찾아가 합창과 음악으로 두 섬의 주민들과 함께 위로와 치유의 시간을 전하기도 했다. 이번 가을에도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등의 시립예술단이 소외지역과 입시로 지쳐있는 학생들, 아파트 주민들을 찾이간다. 먼저, 9월 4일 시립합창단은 중구 신흥동 경남아너스빌 아파트를 찾아가 친숙하고 흥겨운 레퍼토리를 가지고 무대를 연다. 또 13일과 21일에는 금난새 예술감독의 지휘아래 교향악단이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사계’ 중 ‘가을’, 차이코프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다장조’를 연주할 예정이다. 20일과 21일에는 시립극단이 각각 재능대학교와 초은초등학교를 찾고, 시립무용단은 27일 노현초등학교와 인천자모원에서 공연을 갖는다.

## 인천 곳곳에서 땀뚝드는 흥겨운 공연

시립예술단 외에도 크고 작은 공연단이 시 곳곳에서 즐거운 공연을 펼친다. 지난 2004년 창단된 현악 앙상블 ‘i-신포니에타’는 그동안 동인천고등학교, 인천디자인고등학교, 세원고등학교 등 학교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 청소년들과 소통해 왔다. ‘i-신포니에타’가 9월에는 연수구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한다. ‘가을에 듣는 영화음악’을 주제로, 7일에는 연수구용담공원에서, 8일에는 옥련초등학교, 21일 송도해돋이공원, 22일 연수구장미원에서 열린음악회 형식으로 공연을 연다. 서구청은 구청 후문에서 하반기 마실거리 야외공연을 진행한다. 7일에는 어린이뮤지컬 ‘말괄량이 삐삐’를, 14일에는 현악앙상블과 중창단이 출연하는 클래식 콘서트를 펼친다. 이 외에도 남동구와 남구도 노인종합문화회관과 다목적체육센터 등 주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에서 찾아가는 공연을 갖는다.

## ‘찾아가는 공연’ 일정

날짜	장소	공연
9월 4일(화) 오후 5시	중구 신흥동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시립합창단
9월 5일(수) 오후 2시 30분	부평여자고등학교	시립합창단
9월 7일(금) 오후 7시 30분	연수구용담공원	i-신포니에타
9월 8일(토) 오후 7시 30분	옥련초등학교	i-신포니에타
9월 13일(목) 오후 7시	학생교육문화회관	시립교향악단
9월 20일(목) 오후 7시	재능대학교	시립극단
9월 21일(금) 오후 2시 20분	초은초등학교	시립극단
9월 21일(금) 오후 7시	강화문화회관	시립교향악단
9월 21일(금) 오후 7시 30분	송도해돋이공원	i-신포니에타
9월 27일(목) 오전 11시	논현초등학교	시립무용단
9월 27일(목) 오후 2시 30분	인천자모원	시립무용단
9월 28일(금) 오전 11시	재능중학교	시립무용단



# “텐·텐·텐… 제 날개가 확 펴지는 외침이죠”

글. 유동현\_본지편집장 사진. 김보섭\_자유사진가



런던올림픽의 모든 경기는 한편의 드라마였다. 그중 온 국민이 유난히 가슴을 졸이며 선수와 일심동체가 되었던 종목이 있다. 세트제로 룰이 바뀐 양궁이다. 활 한 발에 선수, 국민 모두 일희일비 했다. 양궁은 가장 ‘예민한’ 기구를 사용하는 종목이다. 국궁(國弓)과 달리 양궁(洋弓)은 언뜻 보기에도 구조가 꽤 복잡하다. 선수가 아무리 컨디션이 좋아도 활의 상태가 시원치 않으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없다.

우리나라는 세계가 인정하는 양궁 강국이다. 실력뿐만 아니라 제작도 강국에 속한다. 국내에 4개 업체가 있는데 인천 계양구 이화동에 활 제작 업체 MK Korea가 있다. 이 회사는 세계 최고의 양궁 날개(limb)를 생산한다. 이 회사의 브랜드 ‘VERA’는 세계 양궁계의 아디다스요 나이키로 통한다. 회사 대표는 김경환(41)씨다. 그 역시 20년간 활시위를 당겼던 양궁선수 출신이다.

구월중 1학년 때 처음 활을 쥐었고 선인고와 인천전문대를 거쳐 군복무도 상무에서 총 대신 활을 쏘았다. 전역 후 때맞춰 계양구청에서 양궁팀이 창단되었다. 전국체전에 두 차례 출전해 금메달을 두 번 목에 걸었다. 서울올림픽 개인전 은메달리스트이자 이번 런던올림픽 코치 박성수와 베이징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양창훈은 몇 년 동안 한술밥을 먹은 동료들이었다. 그러나 김 대표는 그들과 달리 늘 ‘기대주일’ 뿐이었다. 결국 활을 내려놓았고 대신 활을 만드는 삼익스포츠사에 입사했다. 개발팀과 판매팀에 근무하면서 다시 활을 손에 쥐었다. 그는 아테네와 시드니올림픽에 ‘참가’했다. 선수가 아니라 회사 제품을 사용하는 선수들을 위해 ‘AS 출장’을 다녔다.

그리고 10년 후 자신만의 활을 만들기 위해 2007년 4월 창업을 했다. 자신처럼 선수 출신인 후배 직원들과 밤을 지새며 활을 개발하고 생산했다. 탄성과 강도 시험을 위해 공장 공터에 표적판을 세우고 수없이 활을 쏘다. 어느 정도 제품에 자신감이 붙자 전국 곳곳에 있는 현역 선수들의 훈련장을 찾아다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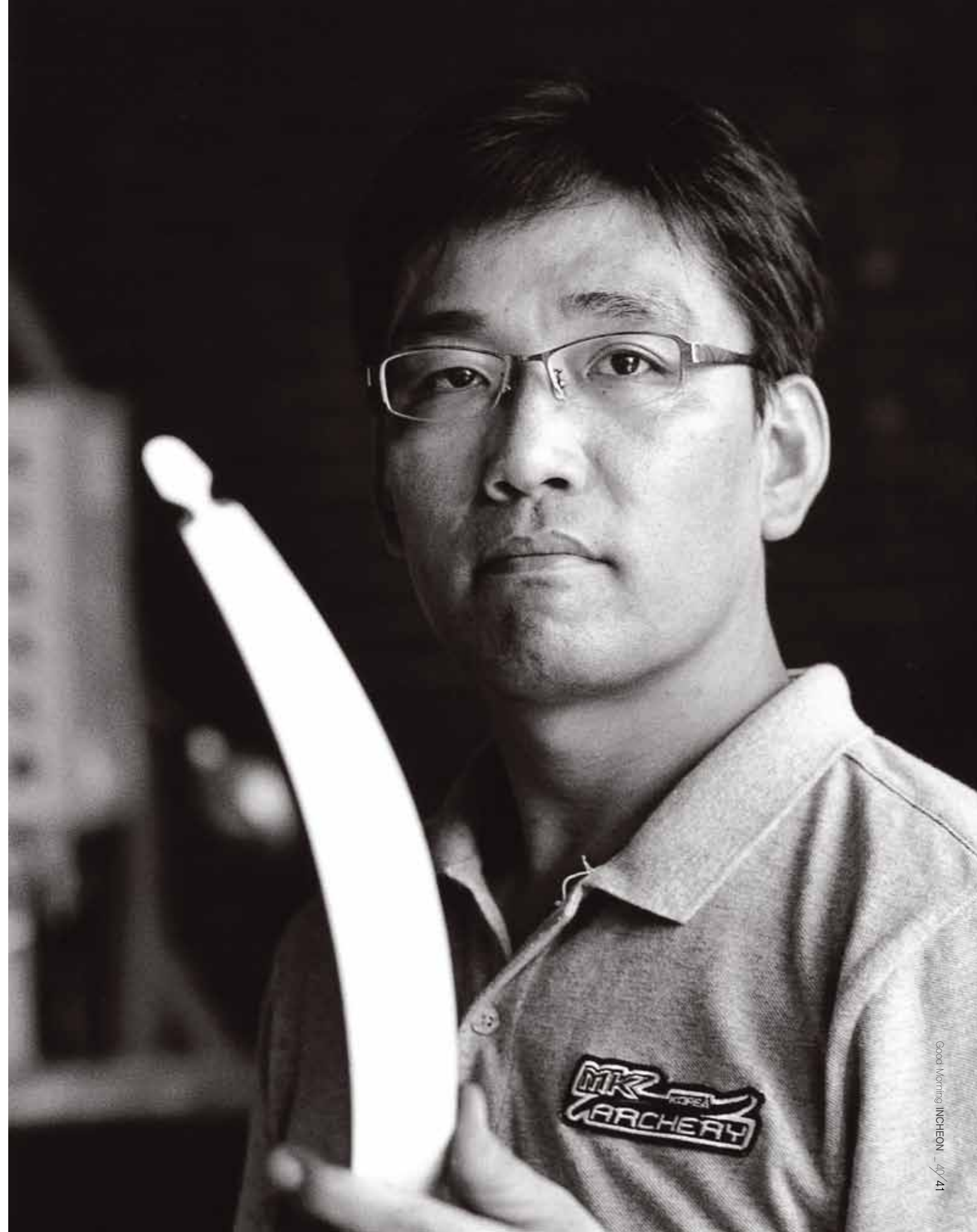
“잘 안 바꾸죠, 저도 그랬으니까. 활은 신체의 일부입니다. 0.1파운드의 미세한 무게만 변해도 불편해 합니다.”

양궁 날개(limb)를 바꾸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그의 ‘날개’가 활짝 펴지는 순간이 찾아왔다. 고교생 공사 김우진이 ‘VERA’를 쥐고 2010년 광조우아시안게임에서 세계신기록(1387점)을 세운 것이다.

이후 미국, 네덜란드, 일본 선수들도 흔히 사용하는 브랜드가 되었다. 이번 영국올림픽팀의 장비 보파리에도 MK Korea의 제품이 담겨져 있었다. 이성진의 날개, 최현주의 예비 활, 그리고 임동현의 핸들에는 ‘VERA’ 마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세계를 향한 그의 날개짓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MK Korea 홍보 브로셔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있다.

*If you are looking to set a new world record or just your own personal record, you should choose our limbs.*

*만약 당신이 새로운 세계신기록을 수립하고 싶거나 개인 기록을 경신하고 싶다면 당신은 우리의 림을 선택해야 합니다.*





GCF 인천유치 국가적 홍보활동에 총력



송도국제도시에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유치하기 위한 움직임이 한창이다. 송영길 시장은 21일 열린 UN ESCAP(아태경제사회위원회동북아지역사무소), UN OSD(지속가능발전센터) 등 지역에 입주한 8개 국제기구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GCF 유치 추진 경과를 보고하는 한편 국제기구 차원의 협조를 구했다. 송 시장은 이 자리에서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한 GCF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곳이 한국이고 사무국 직원들을 위한 최적의 비즈니스 장소가 송도”라며, “GCF 사무국 유치로 개도국과 선진국 간 훌륭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조명우 행정부시장과 실무자 등 우리시 관계자들은 지난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GCF 제1차 이사회에 참석했다. 이들은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후보이사국 등



의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석해 송도의 장점을 알렸다. 이번 GCF 이사회는 주요 의제로 GCF 유치국 선정 절차, 이사회 공동의장 선정, 향후 Work Plan 등을 주로 논의했다. 특히, 2차 이사회에서는 GCF사무국 유치를 위해 특별제작한 영화 ‘더 리플렉션’이 상영될 예정이다. 배우 정겨운과 이세은이 출연한 ‘더 리플렉션’은 유엔 녹색기후기금(GCF) 대한민국 유치 후보 도시인 인천 송도에서 올 로케이션으로 촬영된 아름다운 풍광과 더불어 두 배우의 감성연기가 한 폭의 수채화 같은 분위기가 잘 어우러진 단편영화다. 국제사회는 오는 2020년까지 연간 120조원(1천억달러)의 재원을 마련,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GCF 사무국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문의 : 시 환경정책과 ☎440-3432

공공형 어린이집에 3년간 예산 지원

우리시는 공공형 어린이집 31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3년간 예산을 지원한다. 시는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기간이 종료되고 본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각 시설에 대한 실태 점검을 마치고 협약을 체결했다. 예산 지원 방침에 따라 공공형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매월 7만6천~7만8천원의 보육료를 절감할 수 있다. 협약을 맺은 어린이집은 운영 상세 정보를 공개하고 취약 계층 우선보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등의 공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들 어린이집은 보육료와 인건비를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고, 서비스 질의 제고를 위해 한국보육진흥원, 인천시, 각 군·구가 주관하는 교육과 컨설팅에 참여해야 한다.

문의 : 시 보육정책과 ☎440-2894

인천장애인AG 조직위원회 16일 출범

우리시는 지난 8월 16일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를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정관(안)을 심의, 의결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6명), 집행위원(13명), 감사(2명)와 함께 대회 준비 및 운영 자문 역할을 할 92명의 조직위원도 이날 선임했다. 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얻어 법인설립등기 후 80명 내외로 조직위원회 사무처를 구성할 계획이다. 제11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는 2014년 10월 18~24일 23개 종목에 걸쳐 진행되며, 41개국 선수와 임원 등 총 6천여 명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문의 : 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440-4198



한국뉴욕주립대 학부과정 내년 3월 개설

한국뉴욕주립대가 학사 및 석·박사 과정을 모두 운영하는 국내 최초의 외국대학이 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은 한국뉴욕주립대의 학부과정 설립이 지난 8월 3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최종 승인을 받음에 따라 내년 3월 학부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술경영학 및 컴퓨터과학 대학원 과정으로 지난 3월 개교한 한국뉴욕주립대는 이번 기술경영학과 학부과정 승인을 통해 학사 및 석·박사 과정을 모두 운영하게 됐다. 내년도 학부과정 신입생 모집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온라인(apply.sunykorea.ac.kr)을 통해 진행한다. 기술경영학과 학부과정에 총 100명의 국내의 학생들을 선발하게 된다.

문의 : 한국뉴욕주립대 ☎ 032-626-1121



인천시 ‘소셜웹’ 리뉴얼 오픈

우리시는 지난 8월 20일 인천시 소셜웹(social.incheon.go.kr)을 새로 꾸며 오픈했다. 리뉴얼한 소셜웹은 블로그 메타솔루션을 통해 시와 유관기관의 블로그 및 SNS의 콘텐츠 수집기능을 갖추고 있어, 군·구 및 인천지역 공기업의 소식들을 실시간으로 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종류의 웹브라우저에서 접속이 가능하며, 모바일 환경에서도 접근이 가능토록 별도의 모바일 페이지도 운영한다. 우리시 소셜웹은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인천시 소셜웹’을 검색하거나 홈페이지(www.incheon.go.kr) 내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문의 : 시 대변인실 ☎440-8303



인천시-EMEC, 조류발전 사업 업무협약 체결

우리시는 지난 8월 17일 해양에너지 조류발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해양에너지 조류·파력발전 공인인증기관인 유럽해양에너지센터(EMEC)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인천시 조류발전단지 조성과 테스트베드 사업을 위한 기술지원 및 해양에너지 시설 설치가 주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등에서 상호 협력하게 된다. 시는 이번 MOU를 통해 “조류발전단지 조성사업에 EMEC의 선진기술을 접목시킬 수 있게 됐고 세계 해양에너지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자체 평가했다. 한편 2003년 영국과 스코틀랜드 정부, 민간기업 등이 공동 투자해 설립한 EMEC는 조류 8곳과 파력 6곳의 테스트베드를 운영하며 세계의 해양에너지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문의 : 시 녹색에너지정책과 ☎440-4302



베트남 흡소핑 고객, 인천 의료관광 체험

인천의료관광재단은 지난 8월 6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베트남 흡소핑 고객 24명이 인천지역 의료기관인 나은병원, 위드미병원에서 의료관광을 체험했다. 고객들은 5박6일간의 일정으로 인천에 머물면서 강화도, 월미도, 자유공원, 차이나타운 등을 방문해 다채로운 역사와 문화를 경험했다. 2차 흡소핑 고객은 8월 27일 입국했으며, 앞으로도 매월 20~30명의 베트남 고객들이 흡소핑 상품에 참여했던 인천 의료기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인천의료관광재단은 지난 4월 12일 베트남의 24시간 흡소핑 채널인 베트남 VNK 흡소핑, 베트남 국영여행사인 하노이투어리스트와 의료관광 및 흡소핑시장 진출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문의 : 인천의료관광재단 ☎260-3118



<div data-bbox="238 150 616 428" data-label="Image"></div> <div data-bbox="134 461 558 494" data-label="Section-Header"> <h3>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이용료 50% 인상</h3> </div> <div data-bbox="134 513 717 942" data-label="Text"> <p>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이용료가 오는 10월 1일부터 2천200원에서 3천300원으로 50% 인상된다. 인천항만공사는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여객객이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출국 때 납부하는 이용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공사는 여객터미널 운영 적자 폭이 연간 수십억원에 이르는 상황을 개선하고 여객객 이용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이용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인천과 여객선 항로가 연결된 중국 항만들의 이용료가 인천보다 훨씬 비싸다는 점도 이용료 인상의 한 요인이 됐다. 공사는 한국인 승객이 대부분이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중국인 승객이 인천항 터미널 전체 이용객의 70%에 이르고 있다며, 양국 항만 이용료의 불균형을 좁히기 위해서라도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p> </div> <div data-bbox="134 958 442 987" data-label="Text"> <p>문의 : 인천항만공사 ☎890-8000</p> </div>	<div data-bbox="909 150 1287 428" data-label="Image"></div> <div data-bbox="805 461 1159 494" data-label="Section-Header"> <h3>‘2014 AG 사업비’ 7천900억 절감</h3> </div> <div data-bbox="805 513 1388 942" data-label="Text"> <p>우리시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사업비를 지난 2009년과 비교해 7천900여 억원 절감했다고 밝혔다. 시는 2009년 6월 아시아경기대회 최초 사업계획 승인 시 총 2조 5천805억원의 사업비를 정부로부터 승인받았다. 이후 시는 지난 2011년 5월과 지난 7월 두 차례에 걸친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비 7천932억원을 줄였다. 사업비 절감은 아시아경기대회 사업구역의 폐지 및 축소 등을 통해 이뤄졌다. 시는 지난 6월 송도국제도시 개발사인 미국 게일사 소유의 송도국제도시 내 건물을 방송보도시설(MMC)로 활용기로 한 뒤, 이 건물을 무상 사용하고 아시안게임 후 원상복구 없이 반환하는 협약도 맺었다. 시는 아울러 작년 5월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조정 심의에서 국비 432억원을 추가로 받아냈다.</p> </div> <div data-bbox="805 958 1120 987" data-label="Text"> <p>문의 : 시 시설계획과 ☎440-2355</p> </div>
<div data-bbox="238 1051 616 1329" data-label="Image"></div> <div data-bbox="134 1363 640 1396" data-label="Section-Header"> <h3>인천데이터센터, ‘ISO20000 인증’ 2년 연속 획득</h3> </div> <div data-bbox="134 1416 717 1779" data-label="Text"> <p>인천데이터센터가 국제인증인 ‘ISO20000 인증’ 심사를 2년 연속으로 획득했다. 이번 인증 획득으로 인천데이터센터는 IT 표준운영 프로세스 및 관리 체계에 대한 객관적 신뢰도를 확보했으며, 인천시 정보시스템의 체계적 운영 및 고품질 서비스 제공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발판을 마련했다. ISO20000인증은 IT서비스 운영의 모든 절차를 대상으로 서비스 관리 수준과 운영이 국제표준에 맞는지를 검증하는 국제 인증이다. 인천시청과 시 산하기관에서 각각 운영·관리하고 있던 정보자원을 통합해 본격 가동에 들어간 인천데이터센터는 지난해 지자체 최초로 ‘ISO20000인증’을 획득했다.</p> </div> <div data-bbox="134 1794 527 1823" data-label="Text"> <p>문의 : 시 정보화통계담당관실 ☎440-2355</p> </div>	<div data-bbox="909 1051 1287 1329" data-label="Image"></div> <div data-bbox="805 1363 1153 1396" data-label="Section-Header"> <h3>팔미도 등대역사전시관 건립 추진</h3> </div> <div data-bbox="805 1416 1388 1779" data-label="Text"> <p>인천지방법해양항만청은 팔미도에 등대 역사전시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인천항만청은 2014년까지 30억원을 들여 팔미도 선착장 인근 해변에 지상 2층, 연면적 317㎡ 규모의 등대 역사관을 건립하고, 터널형 휴식공간, 등대 벽화, 등대 도서관 등도 함께 조성한다. 등대 역사전시관은 팔미도로 귀항하는 선박을 기본 콘셉트로 설계될 예정이다. 건물 외관은 물결치는 파도와 자유롭게 비상하는 갈매기의 날개를 형상화했다. 인천항만청은 지난 8월 16일 건축설계 공모 당선작을 발표하는데 이어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다.</p> </div> <div data-bbox="805 1794 1175 1823" data-label="Text"> <p>문의 : 인천지방법해양항만청 ☎880-6114</p> </div>

### '용마루지역, 십정 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본격화

우리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역에서 벌이는 주거환경개선 2단계 사업 구역 가운데 남구 용마루구역(20만7천㎡)과 부평구 십정2구역(19만3천㎡)에 기반시설 조성 비용 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2005년부터 투입된 기반시설 조성 비용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용마루구역 360억원, 십정2구역 279억원이다. 용마루구역 개선사업은 기존 노후 주택 2천291가구를 철거하고 아파트 3천252가구를 건립하는 것으로, 오는 201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십정2구역 개선사업은 노후 주택 2천771가구를 철거하고 아파트 3천375가구를 건립하는 내용으로, 현재 지장물 조사를 하고 있다.

문의 : 시 주거환경 정책관실 ☎440-3452

### 인천경제청, 공유수면매립공법 개선…예산절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 공유수면을 매립하면서 복토용 양질토사를 유용토로 대체한 공법이 감사원으로부터 예산절감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 현재 송도 등 우리나라 공유수면매립지는 대부분 바다에 있는 준설토를 매립한 후, 상부 20cm 이상은 매립지 인근에서 발생하는 양질토사를 운반해 복토하고 있다. 경제청은 이런 매립과정에서 대량으로 발생하는 유용토가 염생식물의 식생으로 먼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 기존의 양질토사 복토 공법을 유용토로 개선 송도 6·8·11공구 등에 적용해 143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453-7551

### 인천 여·아·정 ‘정부 AG 75% 지원’ 법개정 추진

우리시는 재정국복을 위해 출범한 ‘여·아·정 협의체’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국비 지원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협의체는 개정안에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과 같이 ‘정부가 사업비의 75% 이상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현재 인천아시아경기대회·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에 묶여있는 지원법에 따라 경기장 건설사업비의 30%, 관련 도로건설비의 50%를 각각 국비로 지원받고 있다.

문의 :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458-2152

### 전국 최초 ‘위험지적 안전응답’ 제도 시행

최근 소방공무원 현장 활동 중 순직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고 있는 가운데 인천소방안전본부에서는 ‘위험지적 안전응답’제도를 전국 첫 도입·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대원간에 위험요소 부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안전여부 응답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기법이다. 차고탈출부터 현장도착, 현장활동, 장비조작 등 8개 분야로 세분화한 이 제도는 현재 유형별 응답요령과 매뉴얼을 정비·보강하는 단계에 있다.

문의 : 인천소방본부 ☎870-3044



## "드라마 같은 풍경이 눈앞에~"



벤치에 앉아서 바라보는 야경이 사뭇 드라마 속 풍경 같다. 아국적인 풍경에 여유로움이 가득한 이곳은 송도국제도시. 우리시는 송도국제도시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송도 미래길’의 야간 힐링 탐방을 오는 9월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에 운영한다. 송도 미래길은 전문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송도지역의 알짜배기 관광명소를 도보로 둘러보는 것으로, 총 길이는 4.5km, 소요 시간은 2시간 가량이다. 시는 참여자들을 위해 매주 토요일 오후 인천지하철 센트럴파크역에 길라잡이 2명을 배치한다. 이 도보 탐방코스는 평소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운영되지만, 20명 이상의 단체 탐방객은 원하는 시간에 탐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문의 : 시 관광진흥과 ☎440-4086, 송도미래길 카페-cafe.daum.net/songdo-miraegil)



인터뷰

김영분 인천광역시의회 후반기의회 제1부의장

“대안 만드는 상생의정 하겠습니다”



“자식이 잘하고 있을 때는 아낌없는 찬사와 격려를 보내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엄하게 꾸짖는 어머니처럼 최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시 집행부와 건전한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부의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분 부의장(남동구 제1)은 인천시의 재정위기 극복 및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 등 산적한 과제가 많지만 시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성숙한 의정을 정립하고자 부의장직에 도전했고, 당선됐다.

김 부의장은 앞으로 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회사무처의 조직과 기능을 시의원과 한 몸처럼 움직이게 하고, 개별의원들의 역량과 이상을 실현시키는 방향으로 의정활동의 중심을 이끌겠다는 의지로 가득하다.

시 집행부와외의 관계도 주요 정책수립 단계부터 서로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상생의 의정활동을 최우선으로 삼을 생각이다.

김 부의장은 인천의 발전을 위해 인천시민과 시의원이 씨줄과 날줄이 되어 협력하고 산적한 문제를 풀어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이루는 것이 목표다.

이상철 인천광역시의회 후반기의회 제2부의장

“소통과 교류하는 의정활동 이끌겠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후반기의회 운영은 의장단 중심이 아닌 시의원 중심으로 이끌어갈 생각입니다.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이 평의원들과 간담회나 소통의 자리를 더욱 확대해 평의원들의 목소리가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후반기의회 제2부의장으로 선출된 이상철 의원(옹진군 제1)은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시의회 위상강화로 인천 발전의 주춧돌이 되고 싶어 부의장에 도전했다.

이 부의장은 인천의 당면과제인 재정위기,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성공적 개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분열된 의견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인천발전을 위한 거시적인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의정활동도 소통과 교류, 화합을 실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의회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시와 유기적 네트워크 연계를 다지고 각종 토론회 및 간담회를 자주 열어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이 부의장은 인천시민의 열정과 사랑이 오늘 인천을 있게 한 밑거름이 됐기에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도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예산결산위원장 박순남, 윤리위원장 안병배 의원 선출



박순남 위원장

안병배 위원장

인천광역시의회는 후반기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박순남 의원, 윤리특별위원장에 안병배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인천시 및 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사, 결산승인 활동을 하며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청렴 및 품위 유지, 의무 준수 등 윤리 심사 등의 활동을 1년간 하게 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된 박순남 의원은 “지금 인천시의 재정여건이 2014 아시아경기대회에 따른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등 그 어느해 보다 어려운 상황으로 시의 재정이 건전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안병배 윤리위원장은 “시의원의 확고한 윤리관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시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고 시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일 수 있도록 시의원 스스로 윤리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후반기의회 의정방향 정립 의원연찬회

인천광역시의회는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제6대 후반기 의회의 의정방향 정립을 위한 의원 연찬회’를 열었다.

이번 연찬회는 제6대 후반기 원 구성과 함께 앞으로 2년의 임기동안 의회가 나아가야 할 의정방향을 정립하는 한편, 의원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교환을 통해 나타난 다양한 의제를 하반기 의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주요일정은 우리시 인천항 및 강화조력만 건설 등 해양·생태분야 개발분야의 벤치마킹을 위해 2012 여수세계박람회와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을 돌아봤다.



청소년들, 전망있는 직업군 탐방 체험

인천청소년 진로 지원센터 학생 20여 명이 지난 8월 14일 인천광역시의회를 방문했다. 전망 있는 직업군 탐방 일환으로 실시된 이날 견학은 청소년들이 시의원이라는 직업을 체험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화복지위원회 박승희 위원장은 ‘의원과의 대화시간’을 통해 의회의 역할과 의원들이 하는 일 등 고등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시의원이라는 직업진로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의원은 “이번 인천시의회 체험이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고 그 꿈을 실현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는다”며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주기 바란다”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인천재활의원 방문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7월 24일(화) 남구 주안동에 있는 인천재활의원을 방문하여 재활시설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인천재활의원의 운영주체는 사회복지법인 모듬이복지재단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재활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사회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2002년 9월에 재단이 설립된 후 2003년 2월에 인천재활의원을 개원했다.

인천재활의원은 전국 최초 내무기관(신장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 설립된 후 약 30만회 투석횟수의 이용실적이 있으며 현재 시설이용 장애인 수는 120여 명에 달한다. 시설 관계자는 이용자의 1인 본인부담금이 월 25만원 정도이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들도 많으며, 영리 병의원의 불법의료행위 증가로 이용자의 의료복지서비스의 질도 저하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인천재활의원의 효율적인 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운영비 지원 등 인천시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 아이 함께 키우며 어른도 성장하는 ‘가족 품앗이’

우리시는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모여 육아 부담을 덜고 정보도 함께 나누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각 구군의 건강지원센터에서 공동육아나눔터 20여 곳을 운영 중이다. ‘내’ 아이가 아닌 ‘우리’ 아이를 돌보며 어른도 함께 성장하는 ‘가족 품앗이’ 현장을 찾았다.

글. 정경숙\_본지편집위원



## 함께 키우면 부담 반 행복 두 배

‘과연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 걸까?’ 요즘 부부 특히 맞벌이 부부는 고민이 많다. 도시에 살다보니 육아를 도와줄 친인척 찾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도 걱정은 멈추지 않는다. 아이가 무엇을 먹는지 친구들과는 잘 지내는지, 알림장만으로는 아이의 생활을 헤아리기가 어렵다. 날로 높아져가는 육아비도 부담스럽다.

하지만 해답은 있으니, 가족 품앗이 보육이다. 우리시는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모여 육아 부담을 덜고 정보도 함께 나누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각 구군의 건강지원센터에서 공동육아나눔터 20여 곳을 운영 중이다.

부평구공동육아나눔터. 일곱 살, 네 살 된 딸들을 키우고 있는 주부 최은화(37, 부평)씨는 큰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면서도 일주일에 세 네 번 아이와 함께 이곳을 찾는다. 아이가 자연스레 또래 친구들과 만나 어울리고 본인 역시 다른 엄마들과 유용한 육아정보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도 이 곳이 마음에 쏙 든다.

“여기 오면 친구들도 많고 또 엄마가 함께 놀아줘서 좋아요~.”



## 엄마 아빠는 선생님

공동육아나눔터에는 교사가 따로 없고, 아이와 부모가 주체다. 일반 어린이집과 달리 이곳에서는 부모가 아이들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일례로 부모가 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는 특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전업주부와 맞벌이 가족, 자녀의 연령대와 사는 곳 등이 비슷한 가족을 이어주는 가족 품앗이를 운영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부평구공동육아나눔터의 정슬아 교사는 말한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안 가고 여기 오겠다고들 해요. 아이의 엄마 아빠들도 다른 부모와 만나 육아정보를 나눌 수 있어서 좋다고 하세요. 집에서 멀어 가기 힘들다는 분이 없도록, 앞으로 육아나눔터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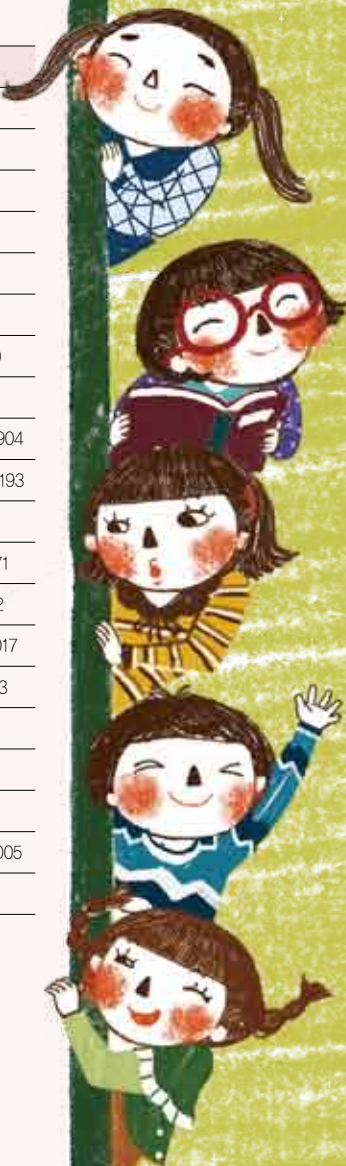
이웃간에 교류가 거의 없고 솔직히 마음을 터놓기 힘든 요즘, 공동육아가 주목받고 있다. 내 아이를 맡기거나 남의 아이를 맡아주는 것이 아니다. 국가, 사회, 가정 모두가 ‘우리’의 아이들을 함께 키우자는 것이 바로 공동육아다.

우리 함께 새싹을 키워  
푸른 숲을 만들어요~

•운영 기관 : 각 구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구/군	운영기관
중구	영종공향교회 ☎751-2977
	내리교회 ☎762-7771
동구	만석교회 ☎070-8227-0297
	솔마을 사랑방 2층 ☎766-3092
남구	용현감리교회 ☎888-2100
	신기중앙침례교회 ☎874-1004
연수구	짱둥이 어린이 도서관 ☎851-2730
	연수일자리센터 ☎851-2730
남동구	남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467-3904
	마중물작은도서관 ☎070-8744-9193
부평구	등대작은도서관 ☎429-2655
	부평구공동육아나눔터 ☎506-0171
계양구	도담도담장난감부개점 ☎515-0252
	계양구건강가정지원센터 ☎547-1017
서구	계양구드림스타트센터 ☎450-5783
	푸른사랑교회 ☎576-1541
강화군	검단어린이집 ☎568-2542
	마리아의집 내 ☎561-0616
강화군	강화군건강가정지원센터 ☎932-1005
	강화군드림스타트센터

- 이용대상 : 인천에 거주지가 있는 3세~6세까지의 미취학 아동
- 운영시간 : 월~금 09:00~18:00
- 이용요금 : 무료(재료비 등 실비는 지급)
- 이용방법 :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한 후 자유롭게 이용
- 문의 : 시 여성정책과 440-2872





## 생활정보

### 2012 대한민국 도예공모전 개최

대한민국 도예공모전 조직위원회는 2012대한민국 도예공모전을 연다. 도예공모에 관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공모분야** : 현대분야(조형, 공예, 제품도자)

전통분야(전통도자, 농정자)

**출품자격** : 국적, 연령 제한없음

**출품제한**

- 주최측에서 파손가능성이 크거나 전시가 어렵다고 판단한 작품
- 무거운(50kg 이상) 작품, 큰 작품(1,000mm×1,000mm×1,500mm 이상)
- 이미 타 공모전에 발표한 작품

**출품수** : 제한없음

**출품료** : 1점당 3만원

**1차 출품작품이미지 또는 사전접수** : 9월1일~15일(토)

- 1차 심사발표 : 9월 19일(수) 서구청 홈페이지, 휴대폰 문자

**2차 작품접수** : 9월 21일~22일, 10사~18시(1차 선정된 작품, 입선 이상)

**출품장소** : 서구 농정자박물관

**심사발표** : 9월 26일(수), 서구청 홈페이지 또는 휴대폰 문자

**문 의** : 560-4345

### GCF 유치 기원 영어 에세이 콘테스트 개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을 알리고 GCF 유치를 기원하고자 제2회 영어 에세이 콘테스트를 연다. 인천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내국인 및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공모기간** : 8월 10일(금)~10월 10일(수)

**공모주제** : Green 인천, Green IFEZ(송도, 영종, 청라)

GCF(녹색기후기금) 송도 유치와 관련된 내용

**응모자격** : 한국인 또는 재한 외국인(국적 및 나이 제한 없음)

**접수방법** : IFEZ 글로벌서비스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global.iefz.go.kr), A4 2~3매 분량(본인이 찍은 사진 첨부 가능)

**시 상** :

- 한국인(시장상·교육감상)

최우수 2, 우수 4, 장려 10(상금은 선거법으로 지급 불가)

- 외국인(시장상)

최우수 1(상금 50만원), 우수 2(상금 30만원), 장려 3(상금 20만원)

**문 의** : 453-7661~4

### 60세 이상 어르신 노후생활 차원 금융제도 운영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저리의 주택담보대출 및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주택 연금 등 서민을 위한 유용한 금융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규 주택담보대출 및 이지만 납부하고 있는 높은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u-보금자리론’을 , 본인의 노후생활 및 부모님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원하는 경우 ‘주택연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 u-보금자리론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 이지만 납부하고 있는 기존의 높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대신 금리 변동 걱정없이 장기·고정금리 상환하고자 하는 분에 적합
- 주택가격 : 9억 이하 가능(우대형Ⅰ:3억 이하,Ⅱ:6억 이하)

**대출기간 및 금리 등**

- 시중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금리(3.3%~4.5%)

구분	10년	20년	부부합산연소득 (국세청 신고소득)
우대형Ⅰ	3.3%~3.8%	3.5%~4.0%	2,500만원 이하
우대형Ⅱ	3.8%	4.0%	5,000만원 이하
기본형	4.3%	4.5%	5,000만원 이하

- 대출한도 : 최대 5억

- 매월 분할상환 및 만기에 75%까지 일시 상환가능  
(매월 상환부담 최소화)

### 주택연금

**주택연금의 혜택**

- 평생동안 배우자와 같이 주택연금 수혜
- 평생동안 내 집에서 편안하게 거주
- 재산세의 25% 감면

**가입요건**

- 연령 : 부부 모두 60세 이상(독신인 경우도 가능)
- 대상주택 : 시가 기준9억원 이하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 주택보유 여부 : 부부기준 주택 1채 소유

**월 지급금 예시(주택가격 : 3억 기준)**

	(단위: 천원)				
가입연령	60세	65세	70세	75세	80세
지급액	720	860	1,039	1,279	1,609

**문의** : 441-2176, 441-2159

### 영종도서관 9월 문화프로그램

영종도서관은 9월 동안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한다. 관심 있는 지역주민의 많은 참여 바란다.

**9월 문화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명	기간	장소	대상
전시	손 안 애서(愛書) ʼ책 읽는 사진전	9월 4일(화)~21(금)	1층 로비	전체
	독서 포토제닉展 책과의 눈 맞춤	8월 1(수)~9월 28(금)	컴자람터 (1층 어린이실)	전체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추천도서전	9월 11일(화)~28일(금)	어문학실	전체
상시	빛그림무지개ʼ영상동화 읽어주기	9월 15일(토) 11:00-12:30	컴자람터 (1층 어린이실)	초등
	도서관 선생님과 함께 떠나는 책나라 여행	매주 금요일 16:00-16:50		유아
	행복 전하는 동화배달부 찾아가는 동화 읽어주기	9월13일(목) 15:00~17:00	인천보라매아동센터 인천 중구 구립 해송노인요양원	-
특별	독서의 달 행사 1. 명로진 작가 초청 강연	9월 15일(토) 15:30 ~ 17:00		전체
	독서의 달 행사 2. 잡지 나눔 행사	9월 7일(금)~9일(일)		전체
	작은 천재 다빈치 2기	9월 1일(토)~22일(토)	세미나실 2	초등
	영화로 만나는 직업의 세계	9월 8, 22일(토)	소극장	중등
	병영독서동아리 <TRIL> 특강	9월 25일(화) 15:00-17:00	안전해역방어 사령부	병영독서 회원
	저자 한명석 작가 특강	9월 20일(목) 13:00-15:00	세미나실1	성인독서 회원
	영종도서관 2012 북스타트(BookStart)	9월 매주 금요일 10:00-14:00	컴자람터 (1층 어린이실)	유아

**문의** : 745-6000

### 발달단계에 따른 자녀교육! 자녀와 함께하는 경제교육!

서구청소년지원센터는 5, 6차 대단위 부모교육을 진행한다. 가족 및 자녀 문제에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을 후원하고 효과적인 자녀 교육을 돕기 위해 자녀의 발달단계에 맞는 자녀 양육방법을 제공하고 자녀들의 건전한 소비의식과 경제 마인드를 갖출 수 있도록 자녀의 경제 교육법에 대해 알아본다.

**일시** : 10월 20일(토), 5차(10:00 ~ 12:00), 6차(13:00 ~ 15:00)

**장소** : 서구청소년수련관 공연장

**강사** : 5차 - 김용태(햇볼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6차 - 이재로(희망경제교육연구소 대표)

**대상** : 서구 지역 학부모 400명 내외(5차 : 200명, 6차 : 200명)

**교육비** : 무료

**내용** :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자녀양육 방법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효과적인 부모역할 증진, 부모의 경제교육 지도능력 도모

**접수** : 선착순 접수, 사전 전화 접수 필수(~ 9월 28일까지)

**문의** : 584-1388

### 미추홀도서관 9월 행사

미추홀도서관은 9월 문화행사를 연다. 관심있는 시민들의 참여를 바란다.

**애들아, 숲에서 놀자**

**일시** : 9월 8(토) 10:00 ~ 12:00

**장소** : 남동문화공원

**대상** : 초등 3~4학년

**내용** : 열매와 씨앗 알아보기, 생태놀이 등

**문의** : 440-6662~5

**서재현 작가전**

**일 시** : 9월 13(목) ~ 30(일)

**장 소** : 미추홀도서관 1층 미추홀터

**내 용** : 현대인의 불안 심리를 다룬 판타지적인 작품 전시

**대 상** : 전체

**문 의** : 440-6643

**북스타트 아기 천사들의 목(木)소리**

**일시** : 6월~12월, 매주 목요일 11:00(1회), 15:00(2회)

**장소** : 미추홀도서관 1층 꿈나무터

**대상** : 인천시 2012년 출생영아, 만 18개월 영유아 및 부모

**내용** : 동화구연 후 손놀이, 신체놀이, 음악놀이, 미술놀이 등

**문의** : 440-6647

**책마중(관외예약대출·반납) 서비스**

**장소** : 예술회관역 지하2층, 미추홀도서관 1층

**대상** : 미추홀도서관 회원(타관 회원은 등록 후 이용가능)

**내용** :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무인기계를 이용한 대출·반납

**문의** : 440-6635

**멘토와 함께 인천UN기탁도서관 견학(7기)**

**일시** : 9월 9(일) 14:00 ~ 16:30

**장소** : 미추홀도서관 세미나실1, 컴퓨터실, UN기탁도서관

**대상** : 국제활동에 관심있는 고등학생 및 일반인

**내용** : 멘토와의 간담회 및 ODS(Ofical Document System)를 이용한 UN자료 검색법 교육

**문의** : 440-6644

**UN ʼ세계평화의 날ʼ 기념행사**

**일시** : 9월 21(금) 11:00~18:00

**장소** : 광화문 광장(현재 미정)

**주관** : 유엔세계평화의날 한국조직위원회

**대상** : 전체

**내용** : 평화의 책 리뷰 및 UN기탁도서관 홍보

**강사** : 사서, 자원봉사자

**문의** : 440-6644



## 울목도서관에서 가을을 느껴보자

울목도서관이 초가을을 맞아 다양한 문화행사를 준비했다. 가을의 문화 느낌, 문화향유를 원한다면 울목도서관으로 가보자.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 9월 독서의 달 기념 행사

**행사명** : 울목도서관 9월 독서의 달 기념 행사

**운영기간** : 9월 1일(토) ~ 23일(일)

**문의** : 770-3804

#### 세부내용

행사명	일시	주요내용	대상 및 접수방법
[기획 전시] 보림 저작권 수출 그림책 전시회	9월 1일(토)~23일(일) 어린이실 운영시간 내	외국에서 그 나라 언어로 출판된 보림 창작 그림책을 전시	지역주민 누구나
[일반자료실 전시] 문학의 현장 속으로	9월 4일(화)~28일(금) 일반자료실 운영시간 내	청소년 동아리의 문학기행기를 사진 및 소감을 함께 전시	지역주민 누구나
[체험프로그램] '내 소원을 들어줄래?'	9월 15(토) 오후 1~3시/ 오후 3시~5시	옛날 그림책을 함께 읽고, 소원을 담아 만들었던 장승, 솟대 만들기 체험	어린이실 사전접수 7~10세 어린이 선착순 40명
[공연-동화구연] '나는 무서운 늑대라구!'	9월 16일(일) 오후 1시 30분	울목도서관 동화구연 동아리'책소리'가 들려주는 동화연극	당일 선착순 50명
[공연-북콘서트] 문학+음악+이야기	9월 23일(일) 오후 2시	문학과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오감만족 북콘서트	본관 1층 안내데스크 방문 및 전화 사전접수(770-3800) 선착순 50명

### 9월 클래식 인문학

**행사명** : 울목도서관 클래식 인문학-프랑스 가곡과 함께하는 카뮈문학

[2012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차오름 프로그램]

**운영기간** : 9월 1일(토) ~22일(토)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장소** : 울목도서관 본관 2층 소극장

**접수방법** : 울목도서관 본관 1층 안내데스크 사전 방문 또는 전화 신청

**문의** : 770-3804

#### 세부내용

일 시	작품	주제	비고
9월 1일(토) 오후 2시	적지와 왕국	타자 & 세계	청소년 이상 지역주민 누구나/ 사전 방문 및 전화 접수 (50명 내외)
9월 8일(토) 오후 2시	전략	자아 & 자살	
9월 15일(토) 오후 2시	시지프 신화	하무 & 존재	
9월 22일(토) 오후 2시	아방인	반항 & 창조	

### 9월 문학교실

**행사명** : 밤나무골(栗木) 다락방(多樂房)문학교실-고전읽기

[2012 도서관, 문학관 문학작가 파견 사업]

**운영기간** : 9월 6일(목)~27일(목)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장소** : 울목도서관 본관 2층 소극장

**접수방법** : 울목도서관 본관 1층 안내데스크 사전 방문 및 전화 신청

**문의처** : 770-3812

## 4기 평생교육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근로자문화센터는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재직자뿐만 아니라 취업·창업을 하고자 하는 인천시민들에게 직업능력개발, 어학능력개발, 취미생활 및 건강웰빙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대상자** : 인천시민

**교육기간** : 10월 8일 ~ 12월 15일(10주)

**신청기간** : 9월 10일 ~ 28일

**교육비** : 무료(교재 및 재료비 본인부담)

#### 운영 프로그램

##### 직업능력개발

- 컴퓨터 : 엑셀ITQ자격증, 파워포인트, UCC 동영상,
- 자격증취득 : 풍선아트, 종이접기, 생활매듭, 독서논술, 미용, 제빵, 중식요리
- 창업과정 : 손뜨개, 홈패션, 아동복만들기, 한복만들기, 드레스디자인

##### 어학능력개발

- 영어 : 왕초보영어, 팝송으로 배우는 영어, 원어민영어
- 일어 : 초·중급, 원어민
- 중국어 : 초·중급, 원어민
- 외국인 한글교실

**건강웰빙 및 건강강좌** : 요가, 라틴댄스, 파플러댄스, 탁구, 생활요리, 양재, 미용, 사물놀이, 모듬북, 오카리나, 피아노 등

**문의** : 578-6123

## 제48회 시민의날 수상자 추천하세요

인천시는 제48회 시민의날을 맞아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했거나 사회의 어려운 곳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시민을 적극 발굴, 시민상을 수여한다.

**시상부문 및 인원** : 3개부문 9개분야 10인 이내

- 사회공익상 부문(6인) : 새마을분야, 봉사분야, 공익분야, 환경분야, 국제교류분야, 기타 특별분야
- 효행상 부문(1인) : 효행상 분야
- 산업발전상 부문(3인) : 상공업 및 농수산발전분야

#### 자격요건

- 10월15일 현재 인천광역시 관내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시상 부문별 공적내용이 현저한 시민

#### 추천자 접수

- 접수기간 : 8월 21일(화) ~9월 10일(월)
- 추천서류 : 추천서, 공적조서 1, 이력서 1, 공적증빙서류 1
- 접수처 : 총무과
- 접수방법 : 접수기간 근무시간 내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접수

**시상** : 10월 15일(월)

**문의** : 440~2500

## 갤러리 배다리 9월 사진전 열어

인천유일의 사진 갤러리 배다리에서는 9월을 맞아 '이민경 사진전-무너지다, 기억되다'와 '이정엽-안개 속의 풍경전'을 연다. 배다리에서 멋진사진이 당신을 기다린다.

#### 이민경 사진전

**제목** : 무너지다, 기억되다

**일시** : 8월 31일 ~ 9월 12일(목요일 휴관)

**장소** : 제1전시실 : 사진공간 '배다리', 제2전시실 : 아벨전시관

**문의** : 070-4142-0897

이민경 사진전 '무너지다, 기억되다'는 서울, 인천, 대구 세 곳에서 오랫동안 채집한, 도시의 내면의 생성과 발전, 개발의 모습을 이방인의 시선으로 보여준다. 사진 19점, 설치 1점, 나레이션 2점이 전시되며 나레이션은 스마트 폰을 통해 청취할 수 있다.

#### 이정엽 사진전

**제목** : 안개 속의 풍경전

**기간** : 9월 14일(금)~19(목)

**장소** : 사진공간 배다리

**문 의** : 010-5400-0897, 070-4142-0897

작가는 말한다 “나는 강변이 가까운 곳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그곳에서 자랐다. 그곳은 강이 가까운 탓에 안개가 자주 찾아왔다. 어린 시절 전차길 너머로 밀려오는 안개 속으로 두 팔 벌려 뛰어놀던 친구들…. 그러나 도심에 비대함으로 안개를 찾아다녀야만 하는 지금, 자옥한 안개 속으로 헤어진 사람도, 또 만날 사람도 있는 듯 나는 안개를 담는다. 그리고 어릴적 추억을 찾는다.”

## 제1기 인천광역시 인터넷신문<I-View> ‘청년기자단’ 모집

끼 있는 젊은이는 모두 모여라~! 인천시 곳곳을 내가 누빈다~!  
인천광역시 인터넷신문 <I-View>에서는 ‘청년기자단’을 모집합니다.  
여러분의 젊은 열정과 패기를 인천시와 함께 하세요.

**모집대상** : 인천시와 기자단 활동에 관심이 있는 20~29세 청년이면 누구나

**모집기간** : 8월 6일(월)~9월 30일(일)

**모집분야** : 취재기자(사진 및 동영상 촬영 포함)

**선발기준** : 글쓰기를 좋아하고 적극적인 취재활동이 가능한 사람  
인천시에 애정이 있고, 인천시 정책에 관심이 있는 사람  
자신의 블로그나 SNS에서 활동이 가능한 사람

**선발방법** : 1차 서류전형(이력서·자기소개서 및 자유기사)  
2차 면접

## ‘왕초보’ 자전거교실 운영

사단법인 자전거사랑 전국연합 인천본부는 ‘녹색성장’ 친환경 근거리 교통대체 수단인 자전거 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여성들을 대상으로 ‘왕초보’ 자전거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명** : ‘왕초보’여성 자전거교실

**교육기간** : 9월 3일 ~ 11월 12일(월~금,주 5일, 10일간, 2주교육)

**교육시간** : 오전 10시 ~ 12시

**교육장소** : 문학경기장 일대

**모집대상** : 인천시 관내 거주 여성이면 누구나

**교육인원** : 1기수당 20명 모집(오전 20명)

**등록비** : 3만원(자전거, 헬멧 대여포함)

**문의** : 427-5434

#### 2012년 하반기 자전거 교실 일정표

기수	입교일	수료일	요 일	시 간	정 원
160기	9월 3일(월)	9월 14일(금)	월~금	10사~12시	반별 20명
161기	10월 1일(월)	10월 12일(금)	월~금	10사~12시	반별 20명
162기	10월 29일(월)	11월 9일(금)	월~금	10사~12시	반별 20명
162기	11월 12일(월)	11월 23일(금)	월~금	10사~12시	반별 20명

- 개인준비물 : 안전장구 [무릎보호대, 팔보호대, 면장갑]
- 교육내용
  - 이론 : 자전거 관련 법규, 자전거 관련상식(건강, 교양역사), 환경보전활동의 이해와 실천 등
  - 실기 : 올바른 자전거 타기, 자전거 이론(차세, 기능), 주행기술 현장체험, 도로적응주행 자전거도로 환경실태 체험활동
  - 평가 : 자전거 도로주행 자격시험(자전거관련 법규, 자전거 기능이해, 주행 기술 등

**활동기간** : 2012년 10월~2013년 9월(1년간)

#### 활동내용

- 월 2회 이상 인터넷신문 취재기사 작성
- 인천시 행사 참여 및 취재
- SNS 홍보활동

#### 활동혜택

- 인터넷신문 기사 채택시 원고료 지급
- 1년간의 교육 및 활동에 따른 수료증 수여
- 활동우수기자 시상(시장상 수여)
- 인천시 산하기관 견학 및 문화·공연 행사 참여 기회 제공

**접수방법** : 이력서(개인 블로그나 SNS주소 첨부), 자기소개서,  
자유기사 1건을 메일로 신청 ► media\_ic@naver.com

**문의** : 시 대변인실 미디어팀 ☎440-8304





## 이달의 서평



###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

아비지트 배너지 | 생각연구소 | 2012

가난한 사람들의 현실, 생각,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빈곤 해결도 없다! 이 책은 세계적 개발경제학자인 아비지트 배너지와 미국의 '에비 노벨상'인 존 클라크 메달을 수상한 경제학자 에스테르 뒤플로가 인간 본연의 '경제적 합리성'에 초점을 맞춰 가난을 뿌리 뽑을 방법을 다룬 책이다. 빈곤층이 구매하는 상품, 자녀 교육 방식, 자녀수 등을 알아내 그들이 사는 법을 탐구하고 시장과 제도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 식욕 버리기 연습

마리아 산체스 | 한국경제신문사 | 2012

왜 먹는 일을 멈추지 못하는가? 독일 함부르크에서 심리치료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심리치료전문가 마리아 산체스가 과거 한때 고도 비만이었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숨 걸고 다이어트를 해도 자꾸만 실패하는 이유를 다 이어서 방법의 문제가 아닌 심리적 원인에서 찾아냈다. 식단 조절이나 약물 복용, 격렬한 운동을 하기에 앞서 개인의 내면에 초점을 맞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몸이 치유될 수 없음을 수년간의 연구와 사례를 통해 알려준다.



### 오페라 읽는 즐거움

서정학 | SEEDPAPER | 2011

미국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과 유럽 비엔나 국립극장을 정복한 한국 최초의 성악가 서정학과 함께하는 재미난 오페라 입문서. 현존하는 오페라 중 가장 대중적이고 재미있는 20개의 오페라를 뽑아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네 가지 감정 해로애락으로 나누어 소개한다. 책에는 재촬영 서곡을 사용하는 로시니의 〈에비야의 이발사〉, 한 남자의 영혼을 구원하는 여인의 노래, 구노의 〈파우스트〉,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등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 행복의 추구

더글라스 케네디 | 밝은세상 | 2012

194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60여 년의 세월을 배경으로 한 여인의 만남, 사랑, 이별, 재회, 화해, 용서로 이어지는 삶의 궤적을 따라간다. 1945년, 보수적인 중산층 가정 출신의 새러 스마이스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기자로 뉴욕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새러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멘토 역할을 해준 오빠 에릭이 있다. 새러는 에릭이 마련한 파티에 갔다가 중군기자 책 말론을 만난다. 인상적인 첫 대면을 한 두 사람은 격정적인 사랑에 빠지게 되지만….



### 주제별 추천도서

자료제공 미추홀도서관 440-6655

서명	지은이	출판사	책 소개
철학자와 철학하다	나이절 워버턴	एको리브르	소크라테스에서 피터 싱어까지 작은 철학의 역사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	아비지트 배너지	생각연구소	MIT경제학자들이 밝혀낸 빈곤의 비밀
현자들의 평생공부법	김영수	역사의 아침	공자에서 모택동까지 공부하는 사람이 세상을 움직인다
낯선 땅에 꿈을 심다	김준우 외	해지원	KOICA해외 봉사단원으로 세상을 품고 돌아온 네 청춘의 이야기
자연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요제프 H. 라이히홀프	이랑	51개의 질문 속에 담긴 인간본성의 탐구 동식물의 생태진화의 비밀
식욕 버리기 연습	마리아 산체스	한국경제신문사	먹어도 배고픈 사람을 위한 심리보고서
그래도 나는 서울이 좋다	오영욱	페이퍼스토리	흔적과 상상 건축가 오기사의 서울 이야기
오페라 읽는 즐거움	서정학	시드페이퍼	오페라 스타 서정학의 특별한 개인레슨
로그이웃에 도전한 우리의 겨울	수잔 모사트	민음인	디지털 세계를 벗어나 진짜 인생을 찾는 한 가족의 유쾌한 고백록
나의 상처는 돌 너의 상처는 꽃	류시화	문학의숲	오랫동안 숙고한 언어, 명상으로부터 길어 올린 지혜, 그리고 진솔한 자기 고백을 마주하다
행복의 추구	더글라스 케네디	밝은세상	사랑과 배신, 시대적 상황, 인간관계 등을 아우르며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묻는다
그들이 세상을 바꾸기 전	에드윈 카스티 주니어	황소자리	한나빌에서 고르바초프까지 22인의 영웅이 탄생한 결정적 순간

### 이달의 인천 향토작가

### 시인 나혁채

1948년 인천 출생

1972년 동국대 국어국문학 졸업.

1982년 현대문학을 통해 문단 데뷔.

하늘나라 들르는 길목을 돌아(1980), 죽음 앞에 선 장엄한 준비(1982), 10월의 손(1983), 책 덮고 누울 자라는, 물소리 연가(1985), 산의 말씀(1987) 등의 주요작품들이 있다.



## 소중한 일자리, 행복한 일자리

본 정보는 고용안전정보망(Work-net)의 구인자료로, 초기에 채용이 완료 될 수 있습니다.  
입사지원자는 『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 ☎032) 458-7488,74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명	모집직종	인원	경력조건	학력	업무능력	근무지(주소)	임금액
성우실업	플라스틱제품생산원	4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화장품 플라스틱 코팅 및 검사업무 (상여급 300%, 통근버스 운영)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4동 473-3	시급 4,580원
(주)라라전자	전기부품 제품생산원	4명	관계없음	고졸이상	전기저항기 제조 및 조립업무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66-19	월급 120만원
파버나인	가구조립원	10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상성제품 TV, 냉장고, 통신 등 외장프 레임 부품 생산 조립 (통근버스 운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28-5	시급 5,000원
(주)대광특수광	범용밀링기조작원	4명	경력 3년 이상	고졸이상	밀링 6,7호기 대형연마업무, 특수강 절단업무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49번길 64	월급 180만원
(주)항진축산	식품(육포) 가공 생산원	5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소고기 육포 가공업무 (통근버스 운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63-10	시급 4,600원
해오름종합식품	식품(김치)가공 생산원	10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각종 김치류 생산에 필요한 생산업무, 단순식품종사업무 (격주토요근무)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1동 173-362	월급 120만원
세원FC	의류 직물재봉사원	4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의류 제조업체 미싱업무 (인근거주자 우대)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952번지	시급 5,000원
세신유통기계(주)	제관용접원	1명	경력 2년 이상	학력무관	펄프 제관용접업무 (상여급 300% 지급)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08-8	월급 150만원
(주)현대가전업	자재관리원	2명	경력 1년 이상	고졸이상	믹서기생산제품 자재관리업무 조달 및 매입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738-1	월급 180만원
신일메텍(주)	경리사무원	2명	관계없음	고졸이상	전자제품업체 경리 및 회계, 문서작성 업 무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764번길	월급 125만원
나사렛 의료재단	종합병원 약제관리원	2명	관계없음	고졸이상	약재 관리 및 보조 업무 (오전/오후 시간 중 선택)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우금로 98	월급 125만원
다해전산	홈페이지 관리원	1명	경력 1년 이상	고졸이상	포토샵을 이용한 홈페이지 관리업무, 편집프로그램 업무 (온라인쇼핑몰경력자우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33-4	월급 150만원
풍성주류	주류배송 및 납품원	2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종합도매상가 주류배송업무 (운전면허 보통 1종 소지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1동 521-2	월급 200만원
(주)프로에스컴	인천공항 주차운전원	4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인천공항 주차 발렛파킹업무 (주간/야간, 관내 셔틀버스운영)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인천공항	월급 130만원
롯데쇼핑(주) 간식점	대형마트 판매원	2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롯데마트 내 농산물코너 정리및 진열 판매업무 (오전/오후조 선택가능)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05-1 롯데마트 간석점	월급 110만원
(주)이룸씨앤에스	호텔 도어맨(서비스원)	1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파라다이스호텔 입구 서비스 도어맨업무 (오전,오후 2교대)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117번길	월급 110만원
세븐주유소	주유판매원	4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셀프주유소 주유 판매업무 (신규오픈주유소, 8시간 근무)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8-351	월급 130만원
(주)제니엘	SKT 판매관리원	10명	관계없음	고졸이상	SKT대리점 내 U-KEY전산업무 CS상담 및 핸드폰 판매관리	인천관내 지역 배치	월급 160만원
푸른마음어린이집	보육교사원	2명	관계없음	고졸이상	어린이집 보육교사업무 (주5일, 보육교사관련 자격증)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4동 1482-23	월급 98만원
더불어 숲 (사회적기업)	홍보 마케팅원	1명	경력 3년 이상	고졸이상	도서(신간,헌책) 판매와 납품 관련 기획, 홍보업무 (장애인병행채용)	인천광역시 중구 자유공원로 22	월급 180만원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채용정보에서 연령이 삭제되었습니다.

☞ 인천시에서는 시민의 구인·구직을 돕기 위해 『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458-7470 ~ 7479, 7488, 7494(인천지하철 간석오거리역 5번출구 50m 전방)





글. 임태형\_한림안과병원 진료과장

## ‘눈’은 자외선을 싫어해~

햇빛은 파장에 따라 크게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으로 분류된다. 우리가 시각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무지개색의 광선이 바로 가시광선이다.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은 자외선은 투과성이 높고 강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조직을 통과하여 보다 깊이 도달하므로 우리 몸에 여러 영향을 줄 수 있다. 피부와 마찬가지로 우리 눈은 외부의 빛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감각기관으로서 바로 이 자외선에 의한 피해가 가장 많은 부위 중 하나다.

우선 짧은 시간 내에 갑자기 많은 양의 자외선을 받게 되면 광각막염이나 광결막염에 걸릴 수 있다. 일식을 관찰한다던지 장시간 사진을 찍는 등, 강한 햇빛에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게 된다. 광각막염은 강한 빛으로 인해 눈표면의 상피세포에 손상이 일어나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눈에 이물감이나 통증이 느껴지고 눈부심, 눈물흘림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심한경우 시력이 떨어지고 극심한 통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급성 눈질환보다 더욱 위험한 것은 지속적인 노출로 인한 누적된 손상이다. 급성 손상은 대개 치료를 받으면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만 만성적인 손상은 영구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수십년 동안 자외선 노출이 지속된 경우에는 눈과 눈꺼풀에 여러가지 신생물(종양)이 발생할 확률이 올라간다. 대표적인 예가 눈의 흰 자위에서 군살 조직이 자라 검은 동자를 덮어 들어가는 질환인 익상편이다. 이 외에도 여러 양

성, 악성 종양들이 자외선의 영향을 받는다.

수정체가 흐려지면서 시력이 떨어지는 백내장 역시 자외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백내장은 주로 나이가 들면서 눈의 노화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데, 자외선이 백내장 발생을 촉진할 수 있는 유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실명을 일으킬 수 있는 황반변성의 여러 원인 중 하나로 자외선을 들기도 한다. 이처럼 자외선은 눈 건강에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되도록 자외선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좋다. 햇빛이 가장 강렬한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는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챙이 넓은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주말에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는 경우 자외선 차단을 위한 선글라스나 고글의 사용은 필수적이다. 색이 들어간 선글라스가 꺼려진다면 일반 보안경도 자외선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므로 상관없다. ‘100% 자외선(UV)차단기능’이 없어도 눈으로 들어오는 자외선을 상당량 감소시켜 주기 때문에 눈건강을 지켜주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된다. 다만 크기에 있어서는 너무 작은 렌즈보다는 일반 안경보다 약간 큰 렌즈를 선택해야 옆으로 침투하는 자외선까지 막을 수 있다.

동양인들은 눈안의 홍채 등에 멜라닌 색소를 포함하고 있어 서양인에 비해 빛에 예민하지 않기 때문인지 선글라스 등에 그리 익숙하지 않다. 하지만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자외선 차단은 눈건강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라 하겠다.



갈매기의 반란

태풍의 영향으로 월미도 여객선과 유람선이 결항했고, 배고픈 갈매기들의 반란이 시작됐습니다. 새 우강을 봉지 채 빼앗긴 아저씨의 허무한 미소, 줄행랑치는 갈매기입니다.

임지연\_연수구 해돋이로



아빠와 아들, 아름다운 뒷모습

18개월 된 아들이 아빠와 손잡고 걸어가는데 뒷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이곳은 바로 인천대공원 내 어린이동물원. 인천대공원은 가족과 함께 놀아보기 좋은 곳입니다.

김정태\_남동구 간석동



귀여운 꼬마신랑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가을 운동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귀여운 꼬마신랑이 커서 지금은 6학년이 되었네요. '건강하고 착하게 자라줘서 고맙다.'

박정서\_연수구 연수1동



폭염야! 물렸거러!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지난 여름, 아이들을 데리고 아이스링크에 갔습니다. 우리 아이들, 탈나지 않고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내 주어 고맙습니다.

한경숙\_계양구 이화동



이것 봐요~ 월척이에요!

소래생태공원에서 개를 잡던 아이들이 빠진 신발을 건지며 즐거워합니다. 어른들도 때론 아이처럼 아주 작은 것에도 행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임충성\_남동구 서창동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굿모닝인천〉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잡지입니다. 애정어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인천을 주제로 한 사진과 글을 받습니다. 인천 풍경에 대한 단상, 인천에서의 추억이 담긴 사진과 함께 간단한 사연(원고지 1매 분량)을 보내 주세요.
- 칭찬하거나 알고 싶은 주변의 이웃을 사진과 함께 소개(원고지 1매)해 주세요

※ 채택된 분께는 문화상품권(1매, 장원은 3매)을 보내드립니다. 마감은 매월 20일까지 입니다. 응모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야 접수합니다.



보내실곳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변인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문의 : 440-8305





## “거북이 읽으셨어요?”

글. 이희수\_ 부평구립 부개도서관 관장

‘One Book, One City’ 한 책, 한 도시? 무슨 소리일까요?  
이야기는 1998년에 시작합니다. 미국 시애틀의 한 사서(Nancy Pearl)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온 시애틀이 같은 책을 읽는다면(If All Seattle Read the Book)?”하고 말이지요. 특정한 책을 선정해 다함께 읽는 것이 가능할까? 책도 읽기 힘든데 다른 사람들과 토론하는 것이 가능할까? 의문점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은 나비의 날개 짓이 되어 2001년엔 미국 시카고에서 작가 하퍼 리(Harper Lee)의 <앵무새 죽이기>로 시작한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미국 전역은 물론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지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시카고 사람들은 <앵무새 죽이기>를 읽고 함께 생각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시카고의 고질적 인종문제를 극복하고 관용을 나누는 사회분위기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렇듯 ‘한 도시 한 책 읽기(One City One Book)’는 지역사회에서 일정기간 동안(보통 1년 단위) 한 권의 책을 선정해 토론과 다양한 문화행사를 펼치는 독서운동을 말합니다. 이 운동은 지역민들에게 독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토론문화를 복돋아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계층의 지역민들이 공통의 문화적 체험을 하도록 하고 소통의 장을 갖게 함으로써 지역민 간의 공감과 화합을 이끌어내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도시 한 책 읽기’가 도입된 것은 2003년입니다. 당시 서산시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됐고, 이듬해부터 여러 도시로 점차 확산됐습니다. 올해는 부평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평구립 5개 공공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부평구 문화재단, 부평구청, 구

의회, 인천시 북부교육청, 북구도서관, 작은 도서관, 학교, 언론, 기업체, 민간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해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계몽적 성격의 일방적 독서관장운동이 아닌 한 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8월 17일 ‘책 읽는 부평’ 선포식에서 한 책으로 선정된 책을 알리고 독서 릴레이가 시작됐습니다. 선정된 책은 여덟 명의 저자들이 들려주는 인문학 이야기 <거북이는 왜 달리기 경주를 했을까?>입니다. 어린이부터 장년층까지 모두 이 책을 돌려 읽으며 서로 토론을 하고 책을 통한 다양한 문화체험을 경험하며 생각을 공유하게 되겠지요.

이제 우리 모두 꿈을 꿉니다. 지구 반대편의 한 사서가 꾸었던 꿈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꿈꾸며 실현해 나갑니다. 그리고 상상해 봅니다. 올 연말쯤 부평구민들 사이에 이렇게 인사하게 되지 않을까요? “거북이 읽으셨어요?”

### 가슴에 새긴 한 구절

‘내가 태어났을 때 나는 울었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은 웃고 즐거워하였다. 내가 내 몸을 떠날 때 나는 웃었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은 울며 괴로워하였다’.

《티베트 사자의 서》중에서

위 내용은 ‘어떻게 살아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줍니다. 이어령 선생도 말씀 하셨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 나는 편안하게 웃고, 남들은 모두 보내기 싫어 슬피 우는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 무서워

골목 한쪽에 버려진 마네킹이다.  
하도 험한 세상에 살다보니 이 녀석 보고도 흠칫 놀란다.  
옛날, 어느 동네이든 다리 흔들며 껌 좀 씹던 형들  
길 가는 아가씨한테 휘파람불며 농 던지던 오빠들은 있었다.  
그러나 요즘처럼 무섭지는 않았다.  
이젠 안전지대가 없다.  
요즘, 온 가족이 행복해지는 말 딱 한마디.  
“다녀왔습니다”

글·사진 유동현\_본지편집장